

김병준 “1300兆 부동산자금, 산업으로 가게 해야” 8

홍상수,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감독상 21

코스피 (28일 전주 대비) ▼ 1987.01 (-175.83P)

코스닥 ▼ 610.73 (-57.26P)

환율 (달러당 원화) ▲ 1213.70 (+4.5원)

금리 (국고채 3년물) ▼ 1.104% (-0.078%p)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오늘부터 신차구매시 최대 143만원 싸진다

車 개소세 6월까지 70% 인하
차종별 73만~143만원 경감
현대·기아, 오늘 판매조건 발표

정부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국산차 가격이 최대 143만 원까지 내려간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개소세 인하 효과에 따른 차량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개소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가격 인하 홍보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1.5%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량 가격을 73만~143만 원 낮췄다. G4 렉스턴은 3504만~4498만 원에서 3361만~4355만 원으로 143만 원 인하된다. 코란도 가솔린은 2201만~2688만 원으로 트

림(등급)에 따라 98만~119만 원 내려간다. 티볼리 가솔린은 1637만~2297만 원으로 73만~102만 원 낮아진다

한국지엠의 신차 트레일블레이저는 시작가가 1995만 원에서 1910만 원으로 낮아졌다. 가장 인기 있는 최고급 트림인 RS 모델을 사는 경우 110만 원 이상 값이 내려간다. 이외에도 △드뉴 말리부 102만~142만 원 △아쿼닉스 88만~119만 원 △드뉴 트렉스 77만~106만 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트래버스와 카마로 SS는 143만 원의 최대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

르노삼성도 개소세 인하에 따라 최대 143만 원까지 차량 구매 비용을 낮췄다. SM6는 92만9000~143만 원, QM6는 103만~143만 원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3일 출시 예정인 신차 XM3도 당초 책정가격에서 70만 원 안팎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기아차 역시 전 차종에 걸쳐 최대 143만 원 인하한다. 개소세 인하와 함께 2일 회의에서 결정되는 3월 판매 조건 혜택까지 더해 차량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개소세 인하 전 11개월간 국산차 판매는 4.2% 감소했다가 개소세 인하 후 11개월 동안(2018년 7월~2019년 5월)에는 1.2% 늘어났다. 권태성 기자 tskwon@



종교계도 코로나 극복 동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각 종단 종교시설이 일요일 종교행사를 중단한 1일 예배당과 법당이 텅 비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동성당, 원불교 강남교당, 조계사. 연합뉴스

감염병 때마다 경제 살린 수출 ‘코로나’도 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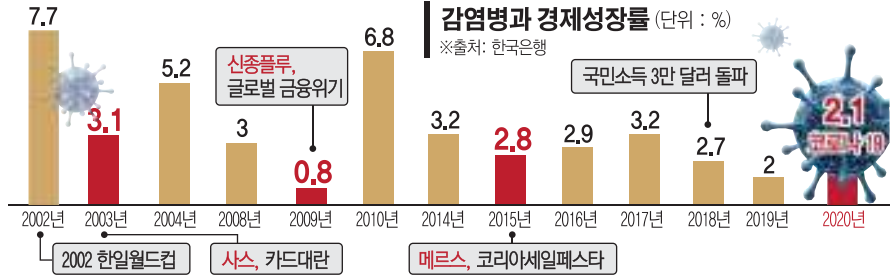
스페셜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5년 전 미국 테드(TED) 토론회에서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폭탄도 기후변화도 아닌, 글로벌 전염병”이라며 “전염병 확산은 전시 상황(war time)”이라고 예언했다. 연초부터 덮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 사회는 물론 경제까지 ‘전시 상황’에 놓였다.

▶관련기사 5면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우환으로 바뀌었다. 국내에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등 술한 감염병이 창궐했지만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은 적은 없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경제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염병이 창궐했던 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크게 위축됐다. 2003년 ‘카스대란’과 함께 찾아온 ‘사스’로 경제성장률은 직전 연도 대비 절반 이하인 3.1%까지 하락했다. 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조 5000억~3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는 공교롭게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여행·관광 줄폐업...내수·수출 위축
신종플루·메르스 때 수출로 경제활력
2015년 ‘코세페’처럼 내수 부양을
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규제완화 필요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일조했다. 당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8%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5년 찾아온 메르스 당시 경제성장률은 2.8%였다.

감염병 창궐 이듬해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졌던 해는 신종플루를 겪은 직후인 2010년이다. 2010년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처음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해다. 갤럭시 시리즈 히트와 화장을 비롯한 한류 열풍이 수출을 견인한 덕분에 0.8%까지 곤두박췌던 경제성장률은 6.8%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수출이 감염병으로 시름하던 경제를 살린 치료제

가 된 셈이다.

감염병을 수출로 극복한 사례는 메르스 때도 확인된다. 무역수지는 2014년 5억 2600만 달러 적자였다가 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 오히려 6억 4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감염병이 발생한 해임에도 2.8%의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기록한 이유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내수와 수출 위축을 불러왔다. 한국 여행을 경고하는 국가가 늘며 여행·관광 업종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전 세계 공급망 붕괴와 중국의 수요 감소가 예고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경제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역수지 증가와 더불어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2015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처음 개최한 바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대한민국동행세일’ (가칭)을 열기로 한 데 이어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폐지 등 유연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주말 1399명 확진...美 ‘대구 여행 금지’

TK 3200명 넘어...이달 초 고비
삼성·LG 공장 일부 폐쇄 ‘초비상’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3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확진자 가운데 60%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량 감염이 우려됐던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이달 초순까지를 중요한 고비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대구에 한해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

▶관련기사 2·3·4·6·9·12·14·15·16면
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586명 늘어난 373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2명 늘어 18명이다. 퇴원자는 3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30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1937년생 남성으로 대구 지역민이며, 나머지 1명은 1943년생 남성으로 사망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우려된다. 이날 오전 대구 확진자 중 1661명이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과 여성 1명이 각각 사망했다.

지역별 확진자는 대구(2705명)와 경북

(555명) 두 지역에서만 3200명을 넘어섰다. 이어 경기 89명, 서울 87명, 부산 83명, 충남 68명, 경남 63명 등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113명으로 확인됐다. 전국 확진자의 약 57%에 해당한다. 대구만 놓고 보면 확진자 2705명 가운데 1877명, 약 70%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시점을 대구 신천지 교회의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16일로 판단, 이달 초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달 16일 코어집단, 유행을 일으키는 중심집단들이 마지막으로 대량 접촉을 일으키고 전파할 수 있는 명확한 기회였다”며 “한 번에 잠복기 사이클을 지나는 시기, 그리고 만약 2차 전파가 발생했다면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이달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을 지나 이달 초까지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사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2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업장을 일시 폐쇄했다.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도 협력사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 내 은행 직원도 지난달 29일 확진자로 확인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상장사 1분기 영업익 전년 대비 -4% 전망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우려로 1분기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기업의 실적은 1월 말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반등할 전망이었지만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최근 한 달 새 7% 가까이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

면 지난달 28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45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20조 7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1조 5203억 원)보다 3.55% 감소한 수치다. 이는 2월 한 달간 기업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조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1월 31일 기준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22조

207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기업의 실적 타격이 예상되면서 2월 말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1월 말보다 6.53% 하향 조정돼 작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별로 보면 전체 145곳 중 67.6%인 98곳(적자 전환·적자 확대 포함)은 1월 말보다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줄었다. 한 달 새 주요 기업 10곳 중 7곳의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셈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외교 총력전’도 안 먹혀… 韓 입국 제한 78국으로 늘어

바이어 면담·출장 취소 잇따라
국내 기업 수출전선 ‘비상등’

주요국 ‘한국 차단’ 도미노 우려
강경화 “과도한 조치 삼가 달라”

외교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과도한 입국 제한을 막고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선진국도 한국에 빗장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입국제한 국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출장 중단, 바이어와의 면담 취소 등도 잇따르고 있어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는 1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 국가가 전날보다 2곳 늘어나 78곳이라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셈이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각국에 입국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터키 이스탄불행 KE955편의 운항 취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5곳으로 앙골라가 추가됐고,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3곳으로 전날보다 1곳 증가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 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외교부는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부담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있다”며 “보건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이 강경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공관 등을 통해 현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현황 (3월 1일 오전 10시 기준)
- 입국 금지: 총 35곳 (영사적 입국 금지 외 한국 출발 이후 일정 기간 지난 입국 조치도 포함)
- 입국 제한: 총 43곳 (검역 강화 또는 격리 조치 등)

※ □: 입국 금지

아시아·태평양	중동	유럽	아프리카
· 마셜제도 · 마이크로네시아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바누아투 · 베트남 · 솔로몬제도 · 싱가포르 · 일본 · 쿡제도 · 키리바시 · 투발루 · 피지 · 필리핀 · 홍콩	· 레바논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요르단 · 이라크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 쿠웨이트 · 오만 · 카타르	· 키르기스스탄 · 터키 · 라트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벨라루스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아이슬란드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우즈베키스탄 · 영국 · 카자흐스탄 · 크로아티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마다가스카르 · 모리셔스 · 세이셸 · 앙골라 · 코모로 · 가봉 · 나이지리아 · 말라위 · 모로코 · 모잠비크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짐바브웨 · 케냐 · 튀니지
· 중국*(일부지역) · 대만 · 마카오 · 인도 · 태국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엘살바도르 · 자메이카 · 트리니다드토바고 · 멕시코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에콰도르 · 콜롬비아 · 파나마 · 파라과이	· 미국령 사모아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상황 변동 가능성 있음 (입국 제한 지역: 광둥성, 랴오닝성,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장쑤성, 지린성,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섬서성)
※ 출처: 외교부			

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구지역

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해 곧 미국도 한국 입국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로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그날 대구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금지(4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대응 총괄을 맡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같은 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의료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귀국한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중국이 아닌 한국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첫 사례로, 향후 미국의 경계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환자 수가 많은 ‘요주의’ 국가로 꼽히는 탓에 쉽지 않은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국이 입국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면 유럽 등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외교부가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 급증

공정위, 위약금 면제 권고했지만
감염병은 천재지변 지정 안돼
법적 근거 없어 환불 강제 불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여행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면제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적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고는 하지만 이미 업계가 입은 피해가 크다. 데다 일반적 취소는 약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은 모두 1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원의 대부분은 위약금과 관련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금지되거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로 보고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행사는 상품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갈등이 커지면서 공정위가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달 27일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강제격리, 검역 강화 조치를 결정한 나라는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하겠다”면서도 “입국금지, 격리 등의 조치가 내려진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검역 강화 단계인 경우 위약금 없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업계도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 데다, 업체별로 특히 재정 여력이 좋지 않

은 곳은 위약금 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지 여행사, 호텔 등으로부터 환불받아야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태희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로서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업체들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여행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OK! 잊지 말고 미리미리 챙기세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마감일 **3월 16일**

#건설업 및 별첨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납부 마감일 **3월 31일**

2020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

▶ 행사대상 :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 2020. 2. 3(월)~3. 6(금) 까지 신고한 사업장
▶ 보험료 신고 : 2020. 3. 2(월)~3. 20(금) 까지 신고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1588-0075**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확진자 1명에 수백억 손실… 폐쇄 기준 유연성 필요”

‘사업장 폐쇄 포비아’ 기업들 대책 마련 골머리

본사 폐쇄하면 기업 컨트롤 기능 상실… 재택·유연근무 등 확대
“사업장 폐쇄 범위·격리기준 등 명확히 해 생산 차질 최소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사업장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기업별로 ‘통제’와 ‘리스크 분산’에 주력하면서도,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폐쇄 기준과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기업별로 대응전략 강화에 나섰다. 비상 시나리오를 가동 중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 폐쇄’가 가장 큰 당면과제다. 위생관리와 방역만으로 한계가 드러난 만큼 코로나19 의심자와 확진자의 사업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사 폐쇄하면 기업 컨트롤 기능 상실=대응전략의 핵심은 통제, 나아가 ‘리스크 분산’이다. 가장 먼저 기업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교대로 재택근무 중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본사가 폐쇄되면 기업 컨트롤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조직별로 사업장 간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특히 구미·수원 사업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을 포함해 사업장 사이 이동을 막았다. 경북 구미에 공장을

운영하는 LG 계열사 역시 대구와 경북 일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직원 전원에게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현대·기아차도 서울 양재동 본사를 포함해 수도권 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조와 출근조를 나눠 근무 중이다. 현대모비스 역시 격일 재택근무를 추진 중이고, 현대제철은 잠복기 2주일을 고려해 격주 재택근무에 나섰다. 대부분의 기업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생산현장 폐쇄하면 하루 손실만 수백억 원=문제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생산 현장이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근로자마다 일정한 공정에 투입돼 맡은 부문을 담당해야 한다. 확진자 1명이 나오면 수천명의 근로자 업무가 정지되는 구조다.

지난달 28일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남성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제네시스 GV80과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하는 울산2공장 도장부 직원이다. 이곳 도장부에만 약 300명이 근무 중이고, 울산2공장 전체에는 오전조와 오후조를 포함해 총 4000여 명이 근무한다. 현대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질병관리본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5일 울산공장 본관 이반테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2공장 전체를 폐쇄했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관련 직원을 격리했다. 확진자 발생 이후 24시간 폐쇄된 울산2공장은 이튿날 오후 폐쇄 조치가 해제됐다. 회사 측은 2일(월요일)부터 본격 재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2공장이 문을 닫으면 생산손실만 하루 약 50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폐쇄가 반복되고 대대적인 근로자 격리도 결정되면 생산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전남 여수산단의 경우 단순한 정전만 발생해도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비상발전을 포함해 겹겹이 대응 수단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별로 사업장 폐쇄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와 공장을 일시폐쇄한 현대차 울산2공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등은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재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폐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건 없는 일괄폐쇄보다 효율적 방역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LG디스플레이는 29일 구미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흘간 부분 폐쇄에 들어갔다. 입주은행의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동선이 이 직원 근무지인 복지동을 포함해 사업장 일부에 국한된 만큼, 전면 폐쇄가 아닌 부분 폐쇄가 결정됐다.

재계 관계자는 “사태 초기인 만큼 폐쇄 규모와 자가격리 대상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관이 결정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범위와 격리 기준을 명확히 해 가능한 생산공장 폐쇄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주총 앞둔 재계 ‘전전공공’

주주총회를 앞둔 재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변화기에 있는 주총 장소를 변경하거나 주총을 아예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총을 열더라도 열감지카메라, 손 소독제 등 기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서울 YWCA에서 ‘제43기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자 본사가 있는

부터 이사 선임, 사업보고서 확정 등 경영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3월 주총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대다수다.

주총을 여는 기업들은 주총장의 방역을 철저히 하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효성 등 대부분의 기업이 주총 참석자 간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주총장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디지털 온도계로 주주의 체온을 측정하는 한편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주총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미리 공지하기도 했다. LG디

대관 취소로 급히 장소 변경… 코로나 사태 예의주시
주총 연기될 경우 이사 선임·사업보고서 등 경영 차질
열감지 카메라 등 방역 대책… ‘전자투표’도 적극 권장

중구 청계천로 시그니처타워스로 주총 장소를 변경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 장소가 대관을 취소하며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등 다른 기업들도 “주총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공시할 예정”이라며 이례적으로 장소 변경 가능성을 주주들에게 전달했다.

일부 기업들은 주총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8일 정기 주총을 열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총이 연기되면 정관 변경

스플레이는 주주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전시장 투어와 본사·주총장 간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를 올해는 없앨 방침이다.

기업들은 주총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주주들에게 전자투표제도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한다”고 고지했으며, LG디스플레이 역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주주들께서는 의결권 대리 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당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신천지 신도 1월에 우한 다녀와… 감염 연관성 조사

지난해 7월~지난달 27일
우한서 입국한 신도 42명
中 다녀온 신도는 361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가 올해 1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대구 신천지교회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1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분부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중국 우한에서 1월 중에 방문했던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신도 24만4743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를 요청받아 조회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는 총 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한이 아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신도는 모두 3610명이었다.

중국, 특히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내 대량 확산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확진자의 대부분이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의 60%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재 국내 확진자는 3736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에서만 2705명이 발생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2113명에

달한다.

특히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21만 여명 중 미성년자와 주소불명인 자를 제외한 19만 여명 중 증상 유무 조사가 완료된 88% 가운데 유증상자는 3381명으로 집계돼 추가 확진 환자 발생이 상당 수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부분부장은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서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특정한 어떤 집단, 중심집단이 유행을 많이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6일 대구에서 있었던 집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방대본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를 서두르는 한편, 올해 중국과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지역을 다녀온 신천지 신도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고, 첫 환자가 나온 시점이 1월 21일인 점을 고려해 입국 시기는 1월 이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분부장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유행이 되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막는 데 활용이 될 것”이라며 “생활밀집시설에 대한 차단을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조사를 두고 신천지의 거짓 정보들이 코로나19 확산과 대응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 지부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중국 내 신도의 입국을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일 시민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경기지역 319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오후 2시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판매 수량은 1인당 5장으로 판매가에 별도 마진은 붙지 않는다. 뉴시스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건전성 빨간불

관리재정수지 적자 71.5조

추경 후 GDP 대비 4% 넘을 듯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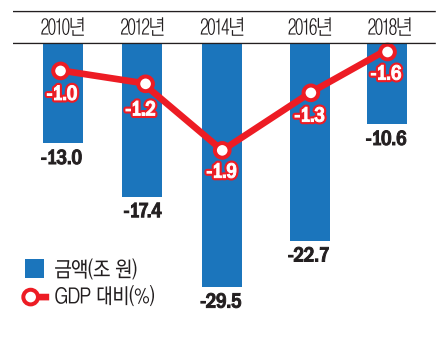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주 중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키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되고 이대로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면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 원으로 올해 정부의 경상 GDP 전망치의 3.6%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

관리재정수지 추이



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에 정부가 코로나19 추경 최소 규모로 제시한 6조2000억 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여기에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에 달하는 것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셨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도 41%까지 오를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 2000억 원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6%다. 국가채무에 추경 최소 규모를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까지 올라가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시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데 국가채무가 늘어도 대책이 긴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국회, 자영업자 감세법 개정안 조만간 논의

부가세 경감 주목… 매출기준 與 ‘6000만원’·통합당 ‘1억’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강화,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조세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1일 ‘의원발의’ 형식으로 이르면 2일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이 중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주목된다. 이는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대책이다.

일부 내용을 두고 쟁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수혜 범위가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책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관련 내용이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공통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 기준으로 6000만 원을, 통합당은 1억 원을 각각 제시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자체를 60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정작 연 매출 4800만~6000만 원 사이 개인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점, 제조업·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손대지 않고 2년간 한시적으로 90만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세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라”(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의 의견이 제기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코로나19 대응 추경 포함 26조 + α “규모 작고 취약계층 재정 지원 부족”

‘추경 편성’ 전문가 의견
“가계에 월 50만원 긴급 지원
내수 진작 쿠폰 등 발행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 2차에 걸쳐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책을 내놔다. 또 이번 주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약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고 정작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6월까지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70% 감액은 뜬금없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여행업계보다 자동차 업계가 엄청 타격을 입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건물주 임대료 지원, 가족돌봄 휴가 낸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도 임대료나 휴가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태경 처장은 “차라리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계에 월 50만 원 긴급 생활비 지원 같은 대책이 나와야 했다”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를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

동차 부품업체의 관세 특례경감 이야기가 있었고 관광업체에 대한 무담보 금리 우대 혹은 지역상권에 대한 상품권 확대 같은 조치들이 포함돼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코로나19 피해 우려 업종과 지역과 업체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든지 혹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들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도 매우 약할 뿐더러 재정투입 규모보다 내수를 살리는 효과도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체력 강화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 높은 미시적 외과적 정밀수술조치(surgical operation)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6조2000억 원은 다소 아쉬운 금액으로 세출 기준으로 두 자릿수(10조 원대)를 기대했다”며 “경제 심리가 불안한 상황으로 국내 확진자 증가폭이 1분기 안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전 세계적인 상황은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출신인 정태인 경제학자는 “전 국민 보름치 긴급생활비 50만 원 지급, 어르신 삼시세끼 도시락 배달, 자영업자 보름치 임대료 같은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유통시장 재편’ 불붙인 코로나19… ‘제2의 쿠팡’ 속도전

감염병의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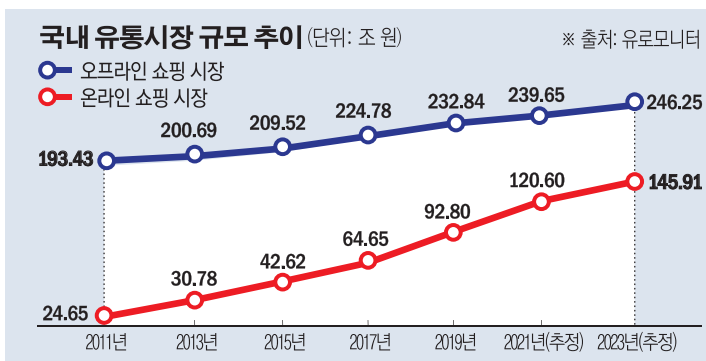
6년 새 온라인 유통시장 3배↑
오프라인은 16% 성장에 그쳐
쿠팡, 메르스 발판 슈퍼스타로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 강 모 씨는 최근 쿠팡에 가입했다. 지인이 진작 추천해줬지만 그때는 귀찮아서 들었다. 집 앞 5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게 되자 아들에게 부탁했다. 라면과 생수, 채소 등을 검색하고 싼 가격에 눌렀다.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한 번 더 눌렀다. 다음 번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도 가입해 볼 요량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쿠팡이라는 ‘슈퍼스타’를 낳았다. 당시 벤처 회사에 불과했던 쿠팡은 2015년에만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5년 만에 대형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컸다. 선두업체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가 할인을 무기로 늘어난 손님을 충성 고객화하는 가운데 고전 중인 대형마트업체도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제 2의 쿠팡’을 노리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유통공룡으로… 메르스가 낳은 슈퍼스타 ‘쿠팡’ = 1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3년 30조 원이던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93조 원을 기록했다. 가파른 성장세 속에 올해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2013년 200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30조 원에 그치며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격하게 된 계기를 메르스 사태로 본다. 10% 내외로 성장하던 온라인 시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매해 20%씩 속도를 높였다.



가장 공격적으로 치고 나간 업체는 쿠팡이다. 24시간 주문할 수 있는 데다 로켓배송을 이용하면 다음날이면 주문 상품이 집 앞에 배송됐다. 쿠팡 매출은 2013년 3000억 원대에서 2015년 1조 원대로 경종 뛰었다. 쿠팡의 지난해 추정 매출은 6조 원대로, 2·3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6조4101억 원, 2018년)·롯데마트(6조3306억 원)와 엇비슷하다. 사업 시작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어깨를 견주게 된 셈이다.

◇손님도 없는데 휴점까지… 오프라인 유통가는 ‘이중고’ = 메르스가 덮친 지 5년이 흘러 코로나19가 또 터졌다. 재래시장은 줄줄이 휴장에 들어갔고, 마스크로 유혹한 대형마트 고객들은 당장 급한 라면과 생수, 즉석밥 등 생필품에만 관심 가질 뿐 오래 머물길 주저한다. 백화점과 면세점을 가득 메웠던 국내외 소비자들도 일부 명품을 제외하곤 발길을 끊었다.

유통업체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백화점 3사의 2월 매출 손실은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매출 감소 예상액도 1000억 원 이상이다. 관계자는 “올해 장사는 완전 망했다”고 푸념했다.

◇이커머스, 승자독식 효과 현실화… 쿠팡, 코로나19로 ‘왕좌’ 굳히나 = 온라인 업계는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려들며 연일 품절 사태다.

쿠팡과 마켓컬리는 주문 폭주로 수시로

코로나19 확산에 외출 꺼리며 생필품 주문 온라인으로 몰려 마트 3사 온라인몰 강화 총력

품질 메시지가 뜨고, SSG닷컴의 예약주문 배송인 ‘쓱배송’ 주문 마감률은 80% 수준에서 최근 99.8%까지 치솟았다. 평소 1~2일 걸리던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일부 생필품 배송일도 며칠씩 밀리는 일이 잦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업체는 쿠팡이다. 전국 단위 배송 서비스는 쿠팡뿐이다. 쿠팡의 하루 주문 처리 물량은 300만

개,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하루 10만 개 내외다. 대형마트들도 규모 면에서 역부족이란 평가다.

◇대형마트도 온라인몰 속도전… 후광 효과로 반격 나선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생필품 품절이 나자 대형마트 온라인몰로 시선을 돌리는 소비자들 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할인과 개파 확장을 통해 신규 회원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20~26일 홈플러스의 온라인몰 매출은 전년대비 162% 늘었고, 2월 한 달 신규 가입 고객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하나금융투

자는 SSG닷컴의 1~2월 매출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SSG닷컴은 ‘쓱배송’ 물량을 20% 확대했고, 새벽 배송 물량도 하루 1만5000건으로 50% 늘렸다. 롯데마트도 배송차량을 20% 증차하고, 물류센터 인력을 14% 확대했다. 홈플러스는 배송 물량을 20% 늘렸고, 생필품 할인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엄청난 속도로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전통 유통업체의 후광 효과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남주현 기자 jooh@bakmision 기자 only@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마트 의무휴업 풀고 소비세 낮춰야”

유통업 중심축 온라인으로 이동… 소비 진작 정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 비대면 쇼핑으로 몰리고 있다. 온라인 소비 연령층은 60대까지 확대됐고, 이들의 학습 효과는 온라인 시장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익성(사진) 한국유통학회장(동덕여대 교수)은 지난달 28일 이투데이와 만나 한국 유통업의 중심축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2월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유통 대기업의 손실액은 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비상 상황에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가 오프라인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휴업하는 날엔 오프라인 영업이 불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주문을 받거나 배송을 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총 소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오프라인이 어렵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

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같은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풀고, 소비세를 낮추고 세액 공제 범위를 늘리는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온라인은 물건이 동나는데 비해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재고가 넉넉한 편이다.

기업에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생필품의 경우에는 수입 등을 통해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진적 자세’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벌어진 일에 대한 끊임 없는 비판만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가능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협조’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안경무 기자 noglasses@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유행국가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12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자연을 생각할 순 없을까?

SK가 친환경 소재로 혁신합니다

더 가볍고 오래가는 초경량 소재로
자동차의 무게는 덜어주고,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이 바라던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

“1300조 부동산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대담=신동민 정치경제부장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아파 트를 짓고 대출 규제하는 식의 부동산 수요, 공급만을 얘기해선 안 된다.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사례처럼 부동산금을 산업쪽으로 돌려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비대위원장에겐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 조언을 들어봤다.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19번째 대재까지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적한 뒤,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안정화 방안으로 갈 곳 잃은 부동산금의 물꼬를 다른 산업 정책으로 뚫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인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인식에서 전환해 부동산금을 다른 산업에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의 부동산금이 얼마나 하면 공식적으로 1100조 원이다. 집 안에 숨은 달러까지 1300조 원이 떠돈다. 이 돈이 불패신화라는 서울 강남으로 모이는 것”이라며 “바로 여기서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금이 계속 늘어나고, 더는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 투자 마인드가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금이 산업쪽으로 흐를 수 있게 산업정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착각과 무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 등을 지낸 그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경기 부흥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만 한 줄 아는데, 한·미 FTA를 거치며 당시 주식시장 규모가 몇 배나 커졌다. 부동산금이 금융시장, 산업으로 옮겨준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해외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며 “당시 OECD 중 독일 등을 제외하곤, 미국 맨해튼 역시 3~4배, 인도 뭄바이는 16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건 돈을 산업으로 이동시켜줬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세계 부동산 정책의 낙폭이 적은 데 반해, 대한민국은 엄청 올랐다. 현 정부가 부동산금 관리를 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우파’를 자임해온 김 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이지, 성장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자기 것이 없다는 의미”라며 “1920년대 케인스 모델을 기본으로 한 구대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내수 아닌 수출 중심이란 점을 들어 노동 임금을 올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요·공급 규제에만 매달리고
부동산금에 대한 관리의 안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

소주성, 경제정책 아닌 사회정책
임금 올리면 수출 경쟁력 하락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도 문제

‘40대 고용난’ 신산업이 해법인데
‘타다’ 이슈처럼 자주 제동만 걸어
조국사태 보니 국정운영 ‘F학점’
답론 없는 패거리 정치 큰 문제



김병준 약력

△1954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영남대 졸 △미국 델라웨어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갈 곳 잃은 부동산금의 물꼬를 다른 산업 정책으로 뚫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구조는 미국처럼 대기업 중심이 아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인구의 26~30%다. 사실상 자영업자 분류에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인 사람도 속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게 ‘네가 고용주니까 피고용자에게 돈을 더 줘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 안팎인데, 국내의 경우는 이의 2배 가까이 된다. 우리 경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말한다”면서 “분배정책인 사회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국민을 속일 줄 알았다.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권 해결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신산업 고용률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을 이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다 막아버렸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혁신 실험을 규제한다. 줄기세포, 드론 등 온갖 규제로 창의적 비즈니스를 막고 있다.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아직도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발전은 없고, 영터리 고용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먹방(먹는 방송)’ 규제,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자유능력이 없다고 감시하는 까닭”이라며 “가격 경쟁이 자리 잡기까지 국가가 인내할 줄 모르고 바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무너지는 경제 허리, 40대 고용절벽에 대해서도 그는 서비스산업 고용률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존의 서비스 산업이 여관, 식당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법률, 외교 등에서도 서비스를 선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슈 등 공유 산업을 언급하며 “첨단 서비스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자주 제동을 건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분권 분야를 개척하고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말로만 연방제에 가깝다고 하지, 실제로 역행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등을 만들며 지역 균형에 힘쓴 노무현 정부와는 180도 다르다”고 평했다. 또, 그는 최저생계비나 노동 시간 등을 예로 들며 “지역마다 생계비가 다른 실정을 반영해 미국, 독일과 같이 지역 단위에서 조정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일률적으로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역 단위에서 경제적 자치 결정을 금지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점수를 매겨 달라는 요청에 김 전 위원장은 ‘F’라고 답했다. 낙제점을 매긴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는 ‘D’라고 말했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에 관해 접근하는 방법 등을 봤을 때 이기려고만 하지 현명하게 지는 법을 모른다고 판단했다. 지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양보로 다음을 위한 초석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해서도 “비전문가인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면 정부적 판단이

들어가는 등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를 타워가 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모두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에 대해서도 그는 “답론이 없는 정치”라고 꼬집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가 없고, 패를 나눠 싸우기만 한다”며 “답론이 없다는 건 미래가 실종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고질병은 잘못된 공천 제도에서 기인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그간의 정치는 정변을 통해 나타난 지도자가 중심이 돼 시혜 주듯 나름의 역사관도 없는 인물들에 정치를 맡겼다”며 “이렇다 보니 답론 없는 줄서기식 패거리 정치가 형성됐다”고 비난했다.

행정수도 설계자로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세종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뺐 탓에 창의 혁신 실험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세종시는 설계 당시 생각했던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변화를 다 반영하는 기술 수준을 담은 미래 상징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다. 통합된 모습이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분권도 되어 있지 않고, 서울 주변 신도시 개편으로 물리적 구조만 들어간 모양새”라고 아쉬워했다.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 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는 “세종시는 새로운 문화, 교육의 도시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당락을 떠나서 이 같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리=이꽃들 기자 flower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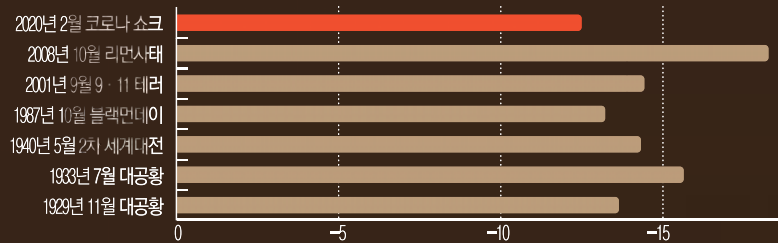
〈팬데믹·세계 대유행〉

‘P의 공포’...트럼프·파월 ‘발등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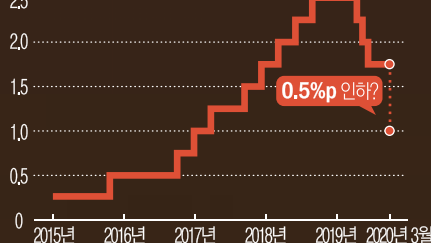
뉴욕증시 시총 일주일새 3.6兆 달러 증발...이달 금리인하 확실히

글로벌 이슈와 뉴욕증시 하락률 (단위: %)

※ 출처: 팩트셋



미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 도중 미국 국기를 끌어안고 있다. 이날 트럼프는 수천 명의 참석자들에게 '미국 대 사회주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우려가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건강한 사람은 완치할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호소했다. 왼쪽 사진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내셔널하버/UPI연합뉴스

‘코로나19’ 美 첫 사망 발생...지역감염 가능성 잇단 제기 파월, 조기 ‘기준금리 인하’ 시사 불구 불안해소 역부족 트럼프도 기자회견 열어 여행금지 촉구·금리인하 압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느라 미국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다우 등 미국 3대 지수는 일주일 간 모두 10% 이상 하락했고, 직전 최고치에서는 약 13%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뉴욕증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1987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에 빗대어 '블랙 위크(Black Week)'라는 말까지 나왔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투매 현상이 벌어진 영향이다. 뉴욕증시 S&P 500지수의 시가총액은 지난주에만 무려 3조6000억 달러(약 4360조 달러) 증발했다. 이에 '투자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긴급 성명을 내고 구

두개입에 나섰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성명에서 "우리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은 작년 6월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를 써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후 세 차례나 금리를 낮췄다. 이날 그의 발언에 증시는 낙폭을 줄였지만,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튿날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이탈리아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촉구하고, 연준에 또 금리 인하 압력을 넣었다. 그는 "연준은 리다가 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가져야 한

다. 연준의 금리는 높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0.5%포인트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상하는 한편, 회의 자체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이달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100%이며, 금리 인하 폭은 보통의 0.25%p가 아닌, 0.5%p가 될 것이라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 지표 중 하나인 런던은행간금리(LIBOR, 리보)는 10년여만의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28일 시점에 3개월물 리보는 11.8bp(1bp=0.01%) 하락한

1.46275%로, 하루 낙폭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 연말까지 최대 3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증시 부양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는 이미 1.50~1.7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한다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간 향후 실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코로나19에 의한 공급망 혼란과 세계적인 여객 수요 침체는 직접 막을 수 없다. 금리인하로 시장의 불안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져도 코로나19 유행이 멈추지 않는 이상 경기 하방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中 제조업 경기 ‘사상 최악’

지난달 PMI 14.3P 하락한 35.7
비제조업PMI 29.6으로 24.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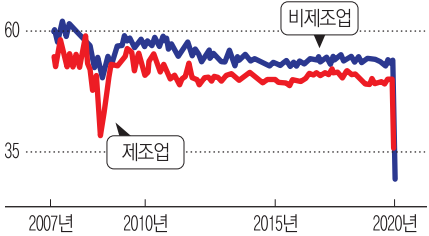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가뜰이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내상을 입은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CNBC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14.3포인트 하락한 35.7로 사상 최저치였다. 이번 PMI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경제지표로, 코

나19가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조업 PMI는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산출하는데, 신규 수주와 생산이 50을 넘으면 경기 '확대', 밑돌면 '축소'를 나타낸다. 중국에서는 이날까지 코로나19로 30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약 8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PMI도 크게 악화했다. 비제조업은 통계를 시작한 2007년 1월 이후 한 번도 50을 밑돈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음식·유통, 여행 등 서비스업이 강한 타격을 받으면서 29.6으로 24.5포인트나 고꾸라졌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장리현 연구원은 "올해 춘제(구정)는 1월 하순이었어서 2월에는 PMI가 상승했

중국 제조업·비제조업 PMI 추이



어야 하지만, 대폭 악화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며 "1분기 경제 지표도 추락하지 않으려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무라는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2%로 전망했고, 개피탈이코노믹스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파해가 적은 지방 정부와 기업들에 되도록 빨리 조업을 재개하도록 촉구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말레이시아 새 총리 무히딘 취임

말레이시아 8대 총리로 지명된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원주민연합당(PPBM) 총재이자 전 내무부 장관이 1일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가족, 지지자들과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압둘라 국왕은 지난달 29일 장기 집권해온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의 사퇴에 따른 혼란 끝에 '노련한 정치인'으로 꼽히는 무히딘을 새 총리로 지명했다. 당초 정계에서는 마하티르와 안와르 이브라힘 인민정의당(PKR) 총재 가운데서 차기 총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왕은 '최선의 결정'이라며 제3의 인물을 선택했다. 쿠알라룸푸르/AP연합뉴스

美, 일부지역 ‘여행 금지령’에 관광산업 타격 벼랑끝으로 내몰린 ‘伊 경제’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이탈리아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0% 늘어 1049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29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경제 도시 밀라노가 있는 북부 롬바르디아에서 발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북부 11개 지자체를 봉쇄했고 주민 약 5만 명은 그 안에서 발이 묶였다. 주변에서는 군과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희귀병의 날'을 맞아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 초록불이 켜졌다. 로마/EPA연합뉴스

경찰이 검문을 실시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봉쇄하기는 쉽지 않다. 이탈리아 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타

국에서 감염 확산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나이지리아와 리투아니아에서 나온 최초의 감염자는 모두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사람들이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28일 한국 대구와 함께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베네토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 이탈리아 국가 자체에 대해선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는 이탈리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이탈리아가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 이탈리아는 작년 4분기에도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엘리엇, 트위터 겨눴다

도시 CEO 축출하려 지분 대량 확보
美대선 등 앞두고 경영방침 변화 촉구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축출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따르면 엘리엇은 상당 규모의 트위터 지분을 확보했다. 잭 도시(사진) 트위터 CEO 경질을 비롯해 대대적 경영개선에 착수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시가 결제회사 스쿼어 CEO 직도 겸하면서 트위터 경영을 병행하는 것을 엘리엇이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리엇은 트위터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CEO를 원한다는 것이다.



상장 회사의 CEO를 겸직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시가총액 50억 달러(약 6조 500억 원) 이상의 상장 기업 두 곳의 경영을 동시에 맡고 있는 CEO는 도시가 유일하다.

또 도시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사업과 관련해 올해 6개월 정도 아프리카에서 머물 것이라고 한 것도 엘리엇의 우려를 자극했다. 특히 엘리엇은 미국 대선, 도쿄 올림픽, 코로나19 사태 등 대형 이슈가 즐비한 올해 트위터의 경영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은 트위터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이 행동에 나선 이상, 트위터 경영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케뱅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 ‘인뱅법’ 통과 촉각

4일 법사위서 법안 처리

2017년 4월, 혁신금융을 앞세워 야심 차게 출항한 케이뱅크가 3년 만에 ‘경영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난다. 출범 초기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2% 후반대부터 적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케이뱅크발(發) 혁신금융은 ‘울스톱’ 된 상황이다.

◇4일 임시국회 법사위서 ‘경영정상화’ 판가름 = 4일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케이뱅크의 명운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뱅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한다.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작업으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인뱅법을 통과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하고 여야 간사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반대하던 특정 의원이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 등 대다수 의원들이 인뱅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공정법)을 위반했

대다수 의원들 법안 도입 공감

ICT 기업 규제 과다에 해외 이탈 법사위원장 등 법안 필요성 인지
업계 “공정법 위반 조항 혁신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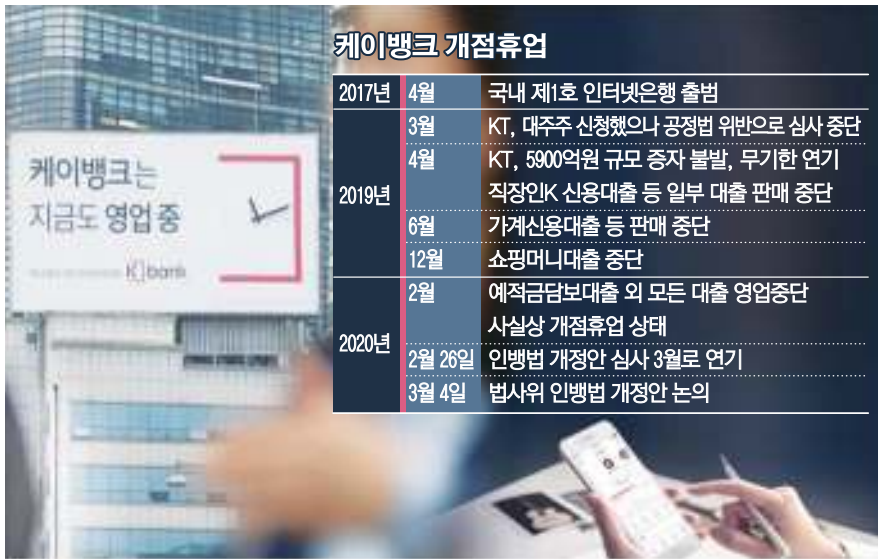
경영정상화 물꼬 트나

대주주 선임·신규자금 수혈 실패
작년 4월부터 대출 판매 ‘울스톱’
개정안 통과돼야 자본 확충

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에 흥행을 이어가다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됐고, 현재는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췄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가 완화된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뱅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케이뱅크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국회나 금융업계가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자동폐기된다.

◇공정법 위반조항은 ICT 업체의 금융

업 진출 방해… 과도한 금융규제 = 현재 개정안 반대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인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ICT 업계에선 채 의원 의견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금융규제가 혁신금융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뱅법에 있는 공정법 위반 조항은 ICT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이 많다.

ICT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고 ICT기업들 모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공정법을 위반했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에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하고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에 대해 계열사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공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장은 공정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 획득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등에 차질을 겪을 뻔했지만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뱅법 개정안은 현정권에서 규제혁신 과제로 꼽히고 있고 국회나 학계에서도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며 “금융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밟고트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주주를 교체하고 계열사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지난달 26일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인선에 돌입했다. 3~4차례 추가 회의를 연 뒤 이달 중순까지 차기 케이뱅크 행장 단독 후보자를 선정한다. 임추위가 추천한 내정자는 이달 말 케이뱅크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임기를 시작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우리·하나銀 ‘기관 제재’ 4일 결론

금융위, 업무 정지·과태료 논의 손태승·함영주 징계도 통보

금융위원회가 4일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임직원에게 확정된 징계가 통보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DFL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 원·하나은행 160억 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다. 반면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깎였다. 앞서 정한 과태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이 부과됐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가 관심사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두 은행에 통보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얹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는 만큼 향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두 사람이 연임과 금융권 취임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손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은 주총 전에 제재 수위를 통보받으면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라 대응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보험研 ‘계약이전제 해외사례 비교’ 보고서 “韓보험계약자 보호제도 도덕적해이 방지책 필요”

계약 이전 통한 고객 손실 無 인수사, 고금리 계약 부담 가중 보호한도 설정·공동 부담 등 보험계약자도 손실 감수해야

금융당국이보험사들의 계약이전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도입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국은 부실 생명보험회사 정리 시 보험계약의 조건 변경 없는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보유계약의 부담은 인수 보험회사에 그대로 전가돼 이전된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은 반면, 인수보험회사는 금리 부담을 모두 책임지게 돼 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원칙에 의해 결정된 정리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청·파산 방식이 최소비용일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는 한 청·파산 절차에 의해 정리해야 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원칙에 부합하면서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정리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보호한도 상한 설정, 공동부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한도 상한은 일정금액 이상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공동부담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비율만큼만 보장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다수의 소액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계약이전 시 보험금의 총한도를 상품종류별로 차등을 뒤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이전 시 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보호함으로써 모든 계약자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영국은 장기보험은 100%, 일반보험의 의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사망 또는 장애보험은 100%, 그리고 일반보험의 기타계약은 90% 보장한다.

보험연구원은 주요국의 부실 보험회사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은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약자 다수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는 보호한도 방법을 사용한다”며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큰 일본의 경우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공동부담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타행 계좌 관리·잔액모으기… SC제일銀, 통합자산관리 ‘눈길’

은행권이 여러 은행의 자산을 하나의 앱에서 한눈에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은행 간 이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제일은행에서는 지난해 7월 모바일 뱅킹 앱을 개편하면서 은행권 최초로 다른 은행 계좌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계좌관리’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타행의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조회 화면에서 간편하게 이체를 진행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기존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 아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연계하여 한 번에 모든 은행 계좌를 보여주고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아카운트 인포는 전 금융권의 본인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한 이후에는 모바일뱅킹의 ‘조회·이체’ 거래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 및 이체가 모두 가능하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 시에 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SC제일은행은 3일부터 오픈뱅킹 고도화의 일환으로 모든 은행권 입출금 계좌의 잔액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잔액모으기’ 서비스를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추가했다. 잔액모으기 서비스는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해 다른 은행들의 입출금 계좌 잔액을 쉽고 빠르게 SC제일은행의 원하는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우리금융, 코로나 피해 극복 11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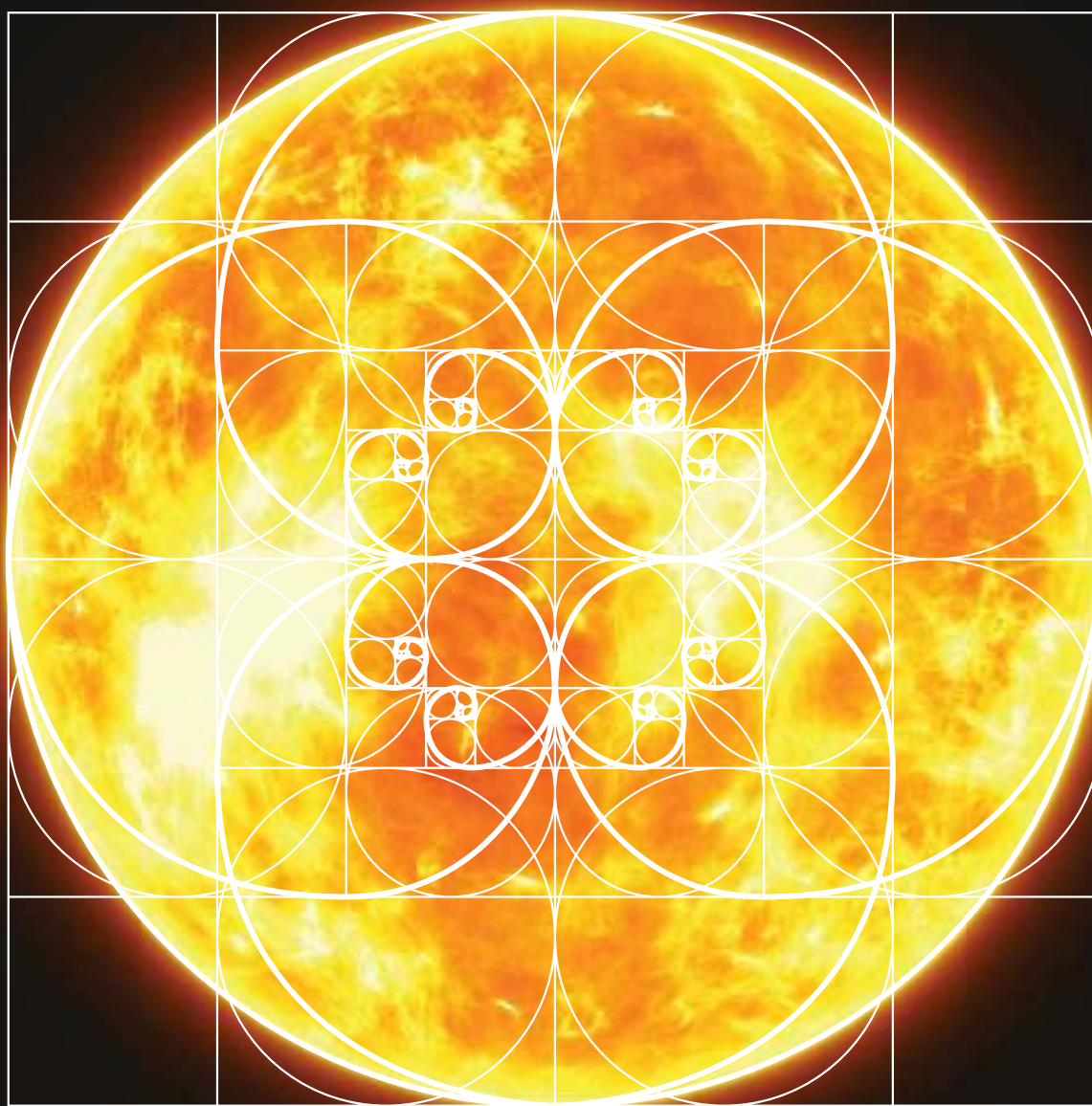
우리금융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1일 우리금융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키트, 손 소독제와 소독 티슈 등 의료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이 임시 폐쇄돼 결식 우려가 높아진 취약계층 노인에게 3억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지원한다. 이 키트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구입한다. 또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감염 위험으로 장기간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구·경북지역 아동생 활시설 57개소에 성금 2억 원도 전달한다. 우리은행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기부했다. 아울러 감염 고위험군인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에게 4만5000장의 마스크를 비롯한 1억 원 상당의 예방키트를 전달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5억 원 상당의 손 세정제와 마스크도 영업점에 비치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한화는 고갈되지 않는 단 두 가지 자원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누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문제
이 거대한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와 세계는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77억 명 누구나 더 쉽고 더 편리하게 태양광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앞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지구촌 곳곳의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막히는 하늘길…코로나 장기화 땀 복직 차질 우려

항공업계 ‘사상 최대’ 위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적자의 늪’
“이대로 가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조종사 노조, 사측에 임금 위임
LCC 6곳, 정부 금융지원 요청

전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다는 점과 고 연봉 때문에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항공 사들이 한순간에 기피 대상으로 전락해버 려다. 대한민국 항공 70여년 역사상 최대 의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노재팬(NO JAPAN)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 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퇴 직, 휴직 등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최대 한 줄이고 있지만, 암흑같은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아 그 어느때보다 미래가 불투명 하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순환휴직자들이 제때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될 정도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 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하늘길이 점점 폐쇄되고 있어 올해도 우리 항공사들은 적자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3주 전체 국제선 여객은 310만 명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하기 이전인 작년 12월(760만명)의 절반 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가 확산 기미를 보인 1월에도 국제 여객수는 788만명이 었다.

존폐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는 고강도 인 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유급휴직, 무급휴 직, 순환휴직, 단축근무는 물론 사직서 제 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하고 있으며, 비행기가 뜨지 못하다 보니 이번에는 역대연봉 조종사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에 한해 지난달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연차 소진에 의한 유 급휴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전직 원 대상 희망자들에 한해 이달부터 6월까 지 최대 4개월간 유급 휴직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전 직원들로부터 희망휴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진에어는 객실·운항 승무 원을 제외한 직원들로부터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

이처럼 항공사들은 최대한 인간함을 쓰 고 있지만 공급 과잉에 수익 창출 공간인 하늘길마저 무너지고 있어 미래마저도 암 울하다.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주저 앉 는 항공사들이 예상보다 빨리 생겨날 가능

성도 커지는 이유다.

매년 입단협에서 사측과 대립해왔던 대 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지 난 26일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사측과의 협 상 결과, 2019년도 임금 조정을 회사에 위 임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느낀다”고 밝혔을 정도다.

항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어떻게든 구조 조정을 통해 버텨내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면서 “그 어떤 답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유·무급 휴직자들 의 복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A항공사 직원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 려했으며, B항공사 직원은 “현재 8개의 항 공사 중 몇 개의 항공사가 살아남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급해진 LCC CEO들은 급기야 정부에 조건 없는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 했다. LCC 6곳 사장단은 28일 공동성명 서를 통해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 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며 보다 신 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 지원규 모 확대, 세금 감면 등을 요청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영대 기자 yeongdai@

국내 항공사 휴직제도 현황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대상 2개월 연차 소진 유급휴가
아시아나항공	전 직원 대상 열흘간 무급휴직
제주항공	희망자 6월까지 최대 4개월 유급휴직, 임금 70% 보장
진에어	전 직원 대상 최대 12개월 무급휴직, 객실승무원 1개월 단위 순환 휴직, 운항 승무원 유급휴직·단축근무 중 선택
티웨이항공	전 직원 대상 희망휴직
이스타항공	주3일, 주4일 등 중 선택(객실·운항 승무원 제외)
에어부산	주4일 근무·무급 15일·무급 30일 중 선택
에어서울	전 직원 유급휴직, 임금지 60~70%

주요 항공사 영업이익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금융감독원 및 각 사
 ■ 2018년 ■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9일 보호복을 입은 이용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G 스타일러, 국내외 호텔에 설치 ‘B2B 질주’

롯데·골든투립·글래드 이어
‘호텔야자’ 평택점 공급 계약

LG전자의 의류관리기 ‘LG 스타일러’가 B2B(사업자 간 거래) 시장에서도 존 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모텔에서 유명 호 텔에 이르기까지 LG 스타일러를 설치하 고 있는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아늘 자의 자체 숙박 브랜드인 호텔야자 평택점 에 LG 스타일러를 공급했다. 공급 규모는 약 30~40대로 추정된다.

LG전자 관계자는 “호텔야자 평택점뿐 만 아니라 여러 숙박시설에 LG 스타일러 를 공급하고 있다”며 “제품이 고객에게 편 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분 위기를 낸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LG 스타일러는 단순 숙박시설뿐만 아 니라 고급호텔로도 진출중이다.

롯데호텔은 2018년 명동에 문을 연 이그 제큐티브 타워 스위트룸 일부 객실에 제품 을 설치했다. 작년 6월 문을 연 부산 골든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에 위치한 ‘글래드 호텔 여의도’에서 한 투숙객이 객실에 설치된 LG 스타 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투립 해운대 호텔&스위트는 500여 개가 넘는 전 객실에 LG 스타일러를 설치했다.

해외 호텔에도 LG 스타일러가 공급되 는 사례가 있다. LG전자는 도쿄를 비롯한 17개 도시에 체인점을 보유한 헨나 호텔의 700여 객실에 스타일러를 설치했다. 일본

이 외산(外産) 가전의 무덤이라는 점을 고 려했을 때 고무적인 성과다.

다양한 숙박시설에서 LG 스타일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LG 스타일러의 무방해어 기능은 1분에 최대 200회 옷을 털어줘, 옷에 있는 미세 먼지를 제거해 준다. 옷의 세균과 냄새는 트루스팀을 통해 완벽히 없애준다. 제품의 우수성 덕분에 LG 스타일러는 미국, 캐나 다, 독일 등 10여 개 국가에 출시됐다.

LG전자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B2 B 시장을 지속해서 공략한다. 최근 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 에어드레스, 코웨이 의류청정기로 경쟁은 과거보다 치 열해졌지만, LG 스타일러만의 고유 기술 을 앞세워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류관리기 시 장에 삼성전자, 코웨이가 진출했지만 여전 히 LG전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시장지배력 때문에 B2B 시장에서도 LG전자가 경쟁 사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車업계, 유럽산 부품 공급난 조짐

MTA 이탈리아 공장 폐쇄
글로벌 ‘코로나 쇼크’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소비부진을 막기 위해 정부 가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했지만 국내 자 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 다. 중국과 한국에 한정됐던 부품공급 문 제가 유럽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부품 한 개가 없어서 공장을 세웠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

이 유럽산 부품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해외 공장이 확진자 한 명으로 인해 멈추 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처음엔 중국 내 완성차 공장가동 중단이 나 중국산 부품 공급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 정도였는데 이제는 직원 중에 코 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국내공장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한정됐던 완성차 생 산차질 우려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

내 완성차·부품 업체도 해외 공장이 문을 닫거나, 유럽 등지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공급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에 납품하는 자동 차 부품업체 MTA는 이탈리아 롬바르디 아에 있는 공장이 폐쇄됐다. 중국 코로나 여파도 뒤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쌓아둔 재고가 소진돼가고 중국에 서 다시 가져오는 데는 여러 주가 걸리고 있다.

덴소와 후지쓰의 스페인 공장이 16일부 터 자동차 오디오 부품 조립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산 부품 부족 때문이다. 유럽은 당장 5일부터 개최 예정 이던 제네바 국제 모터쇼를 미디어행사 불 과 3일전에 취소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전자 ‘그랑데AI’ 건조기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

기준 제품보다 2배 빠른 속도

삼성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그랑데 AI’ 건조기<사진>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 량 1만 대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랑데 AI는 세탁코스에 따라 건조 코 스를 알아서 맞춰 주고 소비자의 사용 습 관을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인공지능 세탁기·건조기다. 지난 1 월 29일 출시됐다.

삼성전자의 기존 16kg 건조기가 국내 시 장에서 1만 대를 판매하는데 8주가 걸린 것을 감안하면, 그랑데 AI 건조기는 미국 에서 2배 가량 빠른 속도로, 최단 기간에 1 만대 판매를 넘어섰다.

그랑데 AI 건조기의 판매 호조 원인은 △혁신적인 AI 기능 △먼지·녹·잔수 걱 정 없는 ‘3무(無) 안심 건조’ △슬립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등으로 분석된다. 이 제품 은 △세탁기에서 건조기까지 조작할 수 있 는 ‘올인원 컨트롤’ △세탁코스에 맞게 건 조코스를 연동하는 ‘AI 코스연동’ △9개의 정밀 센서와 국내 최대 용량의 컴프레서·열교환기로 ‘초고속 건조’를 구현한다.



그랑데 AI 건조기는 소비자들이 건조기 사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생관리도 대 폭 강화했다. 기존 필터에 ‘마이크로 안심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해 열교환기로 가는 먼지를 최소화 하고 열교환기 연결부에 녹 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코팅 처리를 했 다. 또 잔수가 없어 세균이나 악취를 유발 할 염려가 없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열교 환기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 도 유지했다.

송영록 기자 syr@

포스코인터 ‘인니 팜사업’ 산림보호 약속

국내 최초 환경사회정책 선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일 국내 기업 최 초로 팜사업 환경사회정책(NDPE정책) 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NDPE 정책이란 강도 높은 환경사회정 책이다. △환경 보존 및 관리 △인권 보호 및 존중 △ 이해관계자 소통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제 대규모 팜오일 유통기업들이 채택하는 추세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추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 해 경제사회적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고자

선제적으로 NDPE정책을 선언했다고 포 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취지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인도네시 아 동부 파푸아에 법인을 설립한 뒤 팜오 일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량은 작년 기준 연간 약 8만 톤(t)이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정책에 서 농장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을 약속했다. 고보존 가치구역, 고탄소 저장지역 등의 개발을 금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룹 모빌리티 전환 최대 수혜

IT서비스 사업 주력 작년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신사옥 'GBC' 스마트빌딩 구축 1850억 수주 기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기술(IT) 사업을 하는 현대오토에버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그룹 전반이 '모빌리티'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상장 1주년을 맞는 현대오토에버의 주력 사업군은 시스템 기획·개발인 SI(System Integration) 부문과 시스템 운영을 뜻하는 ITO(IT Outsourcing) 부문이다.

최대주주는 지분율 28.48%인 현대차이며,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19.05%,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9.57%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 매출 1조5718억 원, 영업이익 80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3%, 영업이익은 14.3% 증가했다.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

익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에는 현대모비스의 부품 통합시스템 구축, 현대제철의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제네시스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이 영향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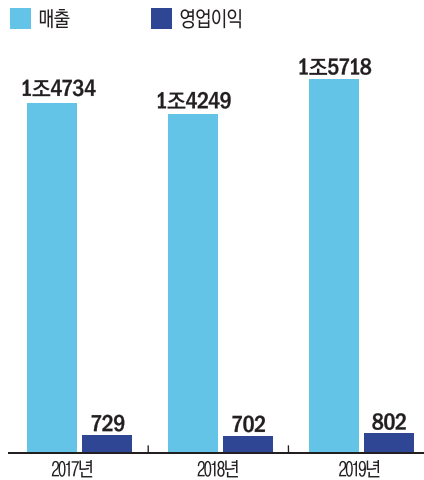
해외 법인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미주 유럽 인도 법인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미주와 유럽 법인은 현지 현대·기아차 홈페이지 개편 사업과 디지털 카키, 커넥티드카 시스템 계약으로 각각 매출이 전년 대비 15% 늘었다. 특히 인도 법인은 기아차가 인도에 새로 건설한 공장의 IT 지원 사업 덕에 매출이 76% 급증했다.

현대오토에버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은 현대차그룹의 사업 방향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구현에는 IT 서비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회사를 완성차 제조업에서 벗어나 '스마트

현대오토에버 실적 추이(단위: 억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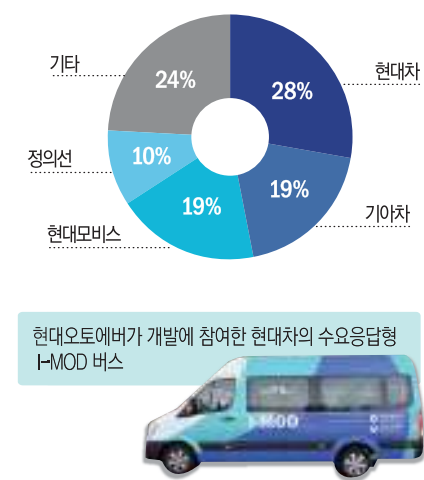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룹 전반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인천 영종도에서 시범 운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I-MOD(아이 모드) 사업에 참여했다. I-MOD는 주민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바꾸며

현대오토에버 지분구조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현대오토에버가 개발에 참여한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I-MOD 버스



운영하는 버스다. 현대오토에버는 이 사업의 IT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전담했다. 현대차는 이 사업을 기존 교통수단인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을 연계한 다중 모빌리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현대오토에버의 주도도 이어질 전망이다.

모빌리티 사업뿐 아니라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축할 계획 역시 현대

오토에버에 호재다. 현대오토에버는 건설 단계에서의 현장 안전 확보 시스템부터 완공 후 통신, 스마트 빌딩 운영까지도 담당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향후 6년간 GBC 사업으로 1850억 원가량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업계는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총수 일가 지분은 10% 미만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이 시스템통합(SI) 부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등 범(汎)현대가와 부품 협력사로 외부 고객을 늘려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그룹 의존도를 낮춰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기업 PR>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 라텍스 설비.

사진제공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수지 등 수익성 극대화 주력사업 내실 다지는 금호석화

용도별 라텍스 제품 다변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등 고수익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보호무역주의와 주요국 무역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1일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합성고무·합성수지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호석유화학은 라텍스장갑의 원료로 사용되는 NB라텍스 제품의 견조한 수요에 따라 올해 역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영업 및 생산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소재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 시장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위생과 관련한 수요가 높아지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증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용 장갑 소재는 물론,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손을 보호하는 산업용 장갑 NB라텍스 소재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른 제품 다변화를 논의 중이다.

자동차 타이어 소재로 활용되는 금

호석유화학의 고품 합성고무 역시 작년의 회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기능성 제품인 SSBR(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와 NdBR(Ultra High-cis Polybutadiene Rubber)부문을 올해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판매량을 확대하고,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 고수익성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합성수지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에도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소재 경량화 및 전장 기술에 필수적인 차세대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합성수지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PS(Polystyrene)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엔지니어링 플라스틱(PS 및 ABS Alloy 제품) 등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중심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첨단 소재인 CNT(탄소나노튜브)는 고무·수지 등 주력제품과의 융합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이차전지 시장에서의 수요를 점진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모색할 계획이다.

살때 타다. 팔때 타다. 투자 타다. 유안타. 티레이더. 티레이더 플러스.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티레이더가 알려드립니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원금보장,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은용결제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채권·펀드 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출금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플러스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62호(2019.02.28)

“수십억 들어 준비했는데”… 전시회 취소 피해 눈덩이

“대면 접촉을 줄이게 하려고 키오스크 50대를 외주 제작해 준비했다. 출입구에는 에어샤워기기 7대를 설치했다. 마스크는 6만 장을 구비했다. 심지어 모바일 입장권으로 입장하게 하려고 애플리케이션(앱)도 만들었다.”

1일 국내 최대 건설·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코리아빌드(KOREA BUILD)’의 주최사인 메세이상의 이상택 부사장은 전시회를 안전하게 열기 위해 들인 노력이 되레 막대한 손해로 작용하게 됐다며 이 같이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코리아빌드는 개막을 하루 앞두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주최 측들은 참가 업체의 손해도 크겠지만, 전시회장 임대료를 이미 지불한 주최 측의 손해도 막대하다고 입을 모아 토로했다.

코리아빌드를 포함해 3월 11일 개최 예정이던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박람회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도 취소됐다.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키메스(KIMES

코로나19 확산에 ‘코리아빌드’ 개막 하루 전 전격 취소
키오스크·에어샤워 등 대책 세웠지만 막대한 손실 ‘허탈’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키메스’도 취소… “정부 지원 절실”

)도 지난주 취소를 결정했다. 키메스는 이달 19일 개최 예정이었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와 키메스는 각각 부스 참가 업체에 전액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주최사인 디자인하우스 관계자는 “참가 업체에 100% 환불하거나 내년으로 이월해 참가할 업체에게는 낸 금액의 20%를 할인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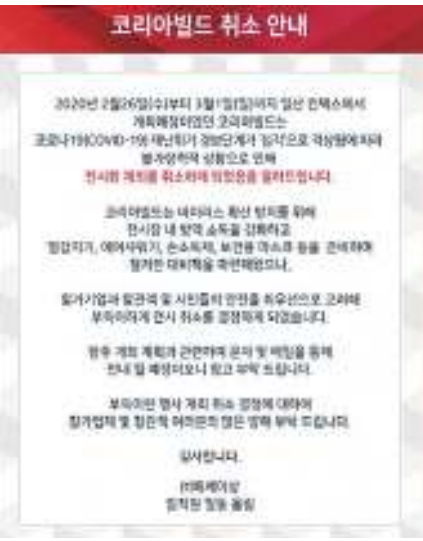
키메스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는 참가 업체에 환급 방법으로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전액 환급 △내년으로 출품료 이월(전액 이월, 내년 출품료 인상 시 인상률 미적용) △‘키메스 부산 2020’로 이월(출품료 이월 및 차액 환급, 내년 출품료 인상 시 인상률 미적용)이다.

한국이앤엑스는 참가업체들의 부담을 없애는 방편으로 환불 대책을 마련했으

나, 정작 코엑스에 지불한 전시회 임대료는 환불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코엑스와 계약상 전시회 14일 전 취소는 지불한 비용의 80%는 돌려받지 못한다. ‘천재지변’ 이유로 행사가 연기되면 위약금이 없지만, 현재까지 코엑스는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이앤엑스가 코엑스에 지불한 금액은 10억 원 이상이다.

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코엑스와 코엑스의 최대주주인 한국무역협회 협의해 절충안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전시회보다 상황이 안 좋은 곳은 ‘코리아빌드’ 주최 측인 메세이상이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나 한국이앤엑스 모두 3월 개최를 앞두고 취소된 것이지만, 코리아빌드는 개막 하루 전 취소 결정을 내렸



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산 양산이 검잡을 수 없어지자 주최 측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코리아빌드는 개최 나흘 전인 2월 22일 전시회 부스 공사에 들어갔고, 24일에는 공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상택 메세이상 부사장은 “여타 전시회랑은 사정이 또 다르다”며 “참여 업체에 전액 환불을 한 주최사들은 전시장을 열지

않고, 기간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세이상은 현재 참가 업체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추후 대책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세이상은 전시회장 임대료와 그 외에 마케팅비, 공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30억 원을 들인 상태다. 여기에는 코로나19를 대비해 외주 제작한 키오스크 50대, 에어샤워기기 7대 등이 포함됐다. 메세이상은 모바일 입장을 위해 ‘원티켓’이라는 앱도 개발해 지난달 출시했다.

이 부사장은 “작년 2월부터 업체들의 예약을 받아 비용을 집행했고, 1년간 지은 농사를 2월 전시회에서 추수하는 개념”이라며 “농사는 지었는데 추수를 못 하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만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부사장은 “참가 업체도 피해가 있겠지만, 단일 기업으로는 주최사 피해가 가장 크다”며 “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크래프톤 ‘테라 히어로’ 대표 이미지.



넷마블 ‘A3: 스틸 얼라이브’ 대표 이미지.

게임업계, 3월 기대작 쏟아낸다

5일 크래프톤 ‘테라 히어로’ 출시
RPG장르 3인 파티플레이 가능

12일 넷마블 ‘A3:스틸 얼라이브’
MMORPG에 배틀로얄 접목

국내 게임업계가 대형 MMORPG 경쟁으로 인해 잠잠한 시장을 깨고 장기간 준비한 신작을 선보이며 시장 강화에 도전하고 있다.

1일 국내 게임업계에 따르면 3월 새작기를 맞아 신작 모바일 게임의 출시 예정이 상당하다. 먼저 크래프톤의 ‘테라 히어로’가 오는 5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크래프톤 연합의 자회사 ‘레드사하라’가 개발하고 있는 이 게임은 2011년 출시한 PC 온라인 게임 ‘테라’를 원작으로 한다. 테라 히어로

는 파티플레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RPG 장르의 게임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되는 파티는 직업 등 전략적인 요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테라 히어로는 무과금 유저들도 밸런스 붕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자금력이 약한 학생들이 즐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넷마블은 ‘A3: 스틸 얼라이브’를 오는 12일 출시한다. 2018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이 게임은 모바일 MMORPG 장르에 배틀로얄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넷마블 관계자들이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A3 스틸 얼라이브’는 5종의 클래스와 대규모 필드, 파티던전, 30인 배틀로얄, 동시간 전체 서버이용자들과 프리 PK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유저몰이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웹젠의 ‘뮤 이그니션2’도 공개된

다. 국내에는 생소한 웹게임으로 출시되는 이 게임은 PC 웹 브라우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은 별도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전편에 비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쉽고 빠르게 게임 접속을 할 수 있다. 특히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설치 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데브시스터즈의 자회사 루비큐브가 개발한 모바일 스타일링 게임 ‘스타일릿’이 오는 3월 글로벌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중이다.

아울러 데브시스터즈의 신규 IP 프로젝트 ‘스타일릿’도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3D 캐릭터가 특징인 이 게임은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대리점 긴급지원 나선 이통사

월세 감면·운영비 지원
KT 50억·LG U+ 25억
SKT도 지원 방안 검토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을 위해 이통 3사가 월세 감면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월세 감면을 비롯한 방역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 등 최대 10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투입한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을 돕기 위해 2월 한 달간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3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감소에 따른 유통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초부터 2회에 걸쳐 대리점 채권 여신기한 연장, 상생 지원책 강화 등 영업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KT 대리점 매장은 2500여개이며, 이번에 지원되는 월세 및 정책 지원 금액은 2월 초부터 시행한 지원과 합쳐 총 50억 원 수준이다.

KT는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 안전을 위해 방역 물품 지원도 계속한다. 방역 물품은 1달 이상 사용 가능한 스

프레이 및 살균 소독제로 구성된 방역 키트와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이다.

KT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유통망과 상생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지역의 대리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매장 내 방역 용품 제공도 한층 강화해 방문 고객과 유통망 종사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2000개 대리점 매장을 돕기 위해 2월 매장 운영자금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자금은 매장 운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 월세 등 비용 부담 경감에 이용된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현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대리점에 보탬이 되고자 2월 매장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를 한 마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통신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전국 대리점을 돕기 위해 월세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yes@

노란우산·중기공제기금, 부금 납부 3개월 유예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도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만기 연장, 부금 납부 유예가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피해 확산돼자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 등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이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했다.

여기에 3월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월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 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필요시 연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교원 ‘스마트 빨간펜’ 26일까지 라이브 특강

교원그룹은 스마트 학습지 ‘스마트 빨간펜’ 회원에게 2일부터 26일까지 ‘라이브 특강’을 선보인다. 라이브 특강은 온라인 화상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회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흡수율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각 멘토들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특강’과 신학기에 필요한 지

식을 전달하는 ‘신학기 주제별 특강’으로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에는 라이브 특강이 진행되고, 화~목요일까지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신학기 특강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먼저 2일과 9일에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특강에 참여해 각각 ‘3.1절 역사 특강’ ‘역사와 함께 배우는 우리나라 여행지’를 강의한다. 16일에는 서울대 출신 멘

토가 참여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회원들에게 공부법과 학습 습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신학기 주제별 특강은 학년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학년에 따라 요일별로 나누어 화요일은 1·2학년, 수요일에는 3·4학년, 목요일 5·6학년에게 필요한 주제별 지식을 전달한다. 학년별 강의는 신학기에 과목별로 필요한 배경지식을 스마트 빨간펜 강사가 전달하며, 신학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지식을 다지고,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재훈 기자 yes@

코로나에 발목 잡힌 K뷰티… 1분기 전망 ‘흐림’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 멈추고
LG생건도 중국 매장 운영 차질
중관광객·보따리상 발길 끊겨
국내 소비도 부진 ‘침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화장품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18년 기준 한국 화장품의 수출국 비중은 중국이 42.4%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K뷰티 매장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 실적이 악화했고, 국내에서는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과 개별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국내 소비자들도 외출을 꺼리면서 국내 로드숍 침체까지 이어져 화장품 업계는 흑독한 1분기를 보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18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26일 가동 중단했던 오산 공장을 28일 재개했지만, 포장재 만드는 생산 라인 등 일부는 아직도 가동 중단 상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방역 작업을 위해 오산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수출이 급속히 쪼그라들면서 재고가 급증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한다. 오산 공장은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화장품인 설화수, 헤라 등을 생산하는 곳이고, 럭셔리 화장품은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다. 중국 법인은 현재 정상 근무 중이지만, 중국에 있는 1800여 개 매장은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매장의 절반가량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수요가 많을 때는 캐파(생산능력)가 수요만큼 못 따라가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생산 비축품이 있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도 출고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LG생활건강도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LG생활건강의 중국 내 매장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한 형태인 만큼 백화점, 쇼핑몰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면 화장품 판매장 역시 임시 휴업하는 상황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사업 매출 비중이 13%, 매

‘화장품 빅2’ 1분기 실적 전망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체	국내 화장품	해외 화장품
매출	-24.0	-22.9	-26.2
영업이익	-50.6	-37.9	-76.0

	전체	화장품 부문
매출	-4.5	-6.2
영업이익	-21.9	-26.2

※ 출처: 하나금융투자

출액은 9991억 원을 기록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줄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는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 코로나19 이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디비치는 중국 내 운영 중인 매장은 없지만, 매출의 90%가 면세점에서 나온다. 그중에서도 중국 보따리상이 최대 수요층인데 코로나19 이후 중국 보따리상은 물론 개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현재 면세업계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면세 비중과 중국 수요가 의존적인 만큼 비디비치의 1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중국 사업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 로드숍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화장품 로드숍을 찾는 발길은 감소하고 온라인 거래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스토어 탈라블라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탈라블라는 이런 추세에 맞춰 봄 정기 세일은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1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올리브영 역시 이달 초로 예정돼 있던 봄 정기 세일을 잠정 연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의 최대 수출 국가가 중국이고, 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상이 사가는 화장품 매출도 상당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업계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면서 “해외 사업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 로드숍도 침체가 심해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 차원의 타개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편의점 “생필품 최대 반값”… 매출 확대 총력전

코로나19 영향 수요 급증
업계 한 달간 대대적 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편의점 업계가 할인 행사에 나섰다. 생필품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편의를,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3월 한 달간 전국 1만4000여 점포에서 ‘주요 생필품 +1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외부활동 자제로 근거리 소비가 점차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알뜰 소비를 돕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죽, 덮밥, 즉석밥, 통조림, 컵라면 등 80여 가지 먹거리 상품에 대해 2+1 행사를 적용하고 칫솔, 치약, 삼푸, 면도기 등 생활용품 30여 종은 50% 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는 이와 함께 특별 행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생필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영남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생수,



가공유, 냉장간편식, 양산빵, 세제 카테고리에서 백산수, 본죽, 햇반, 실속 식빵, 비트 세제 등 총 52종의 상품에 대해 +1 행사 및 최대 42% 가격 할인 행사를 별도로 시행한다.

이마트24도 3월 한 달간 먹거리·생필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연다. 라면, 즉석밥, 컵밥, 간편죽, 통조림 등 식사에 필요한 먹거리와 휴지, 삼푸·린스, 치약·칫솔, 생리대, 세제, 건전지 등 생활필수품 총 440종에 대해 1+1, 2+1, 덤증정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행사 외에도 다양한 카드 제휴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현대카드가 이마트24 고품질 초저가 PL상품인 민생짜장(봉지) 번들(5입, 3200원)과 함께 민생라면(5입, 1950원) 구매 시 1500원 할인이 적용된다. 고객은

봉지라면 5개를 450원에 구매하는 셈이다. 또한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즉석밥 12입을 402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안혜선 이마트24 마케팅담당 상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필요한 생필품을 근거리에서 편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3월 한 달간 먹거리와 생필품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맹점에 원활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25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국 1만400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상품 상시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매일 ‘나만의냉장고’에서 살균 티슈, 손세정제 등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공기정정기와 생유산균 등 30종을 할인 판매하는 ‘생필품 가격 할인’ 행사를 연다.

세븐일레븐은 2일부터 한 달간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 ‘세븐앱’을 통해 전국 점포에서 주요 생필품을 20% 할인해 예약주문 판매한다. 주요 품목은 라면과 즉석밥, 티슈, 통조림을 비롯해 돼지고기고추장찌개, 들깨백순대볶음 등 총 14개다.

남주현 기자 jooh@



집에서 구운 고기 ‘꿀맛’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구이팬을 이용해 불고기, 삼겹살 등 고기를 굽고 있다. 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자들이 외식을 꺼리면서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고기불판’이라 불리는 구이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GS25, 펭수 손잡고 ‘펭럽유 3종’ 출시

펭럽유초코·딸기 2+1 행사

GS25가 대세 크리에이터 ‘펭수’와 손을 잡고 ‘펭수’ 컬래버레이션 유제품 3종을 선보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에 ‘펭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펭수와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GS25는 5일부터 유어스 펭럽유원유 300ml, 펭럽유초코유유 300ml, 펭럽유딸기유유 300ml 총 3종을 출시한다. 세 가지 상품은 펭수의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귀여움과 자신감을 디자인 패키지에 적용했으며, 환경을 고려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패키지를 적용했다.

펭럽유원유 300ml는 국산 1등급 원유 100%를 사용해 매일유업의 3중 신선 보안 ESL시스템을 적용해 신선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갓 짜낸 원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펭럽유초코유유 300ml와 펭럽유딸기유유 300ml는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네덜란드산 코코아파우더와 국내산 딸기 농축과즙을 사용해 신선한 우유맛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은 각 1500원. GS25는 이달 말일까지 원유유는 300원 할인, 초코유유와 딸기유유는 2+1 덤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GS25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아이언트 펭TV’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유제품 GS25 유제품 MD는 “고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진심이 담긴 다양한 상품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百, MZ세대 타깃 ‘라스트오더’ 서비스

델리 브랜드 도제·밀킵 마감세일 상품 모바일 예약

롯데백화점이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급변하는 고객 쇼핑 니즈 충족을 위해 스타트업과 제휴했다. 마감 세일 상품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라스트오더’와 제휴를 통해 퀄리티 있는 F&B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고객 친화적인 쇼핑환경을 구현해 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8일부터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에서 인기있는 델리 브랜드 도제(퓨전우부초밥)와, 밀킵(컵샐러드)을 대상으로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최초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메뉴와 할인을 등은 MZ세대 직장인들의 취향을 고려했고, 이번 운영 기간 고객 반응을 본 후 참여 브랜드와 운영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방법은 을지로·종로 인근의 고객이 라스트오더 앱을 설치 후, 오후 6시 이후 롯데백화점의 F&B 상품을 구매하고 시간을 예약하면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테이크아웃할 수 있다.

라스트오더는 고객 위치 정보를 활용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마감세일 F&B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주요 고객층인 2030 직장인을 위해 판매 제휴 음식점을 엄선하고, 잔여 수량과 픽업 가능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고객은 사전에 선택, 결제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바로 테이크아웃하거나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라스트오더를 운영하는 ‘미로’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해 빠른 소진이 필요한 지역 음식점의 F&B를 판매

하는 등 사회적 가치도 인정받아 롯데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백화점 지하 1층에서는 신선한 식품의 당일 판매를 위해 다양한 브랜드가 마감세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매장을 방문한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라스트오더와의 제휴를 통해 매장의 서비스를 모바일화해,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도 상품을 확인하고 인기있는 F&B를 매진 걱정 없이 줄 서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맛있는 저녁을 저렴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MZ세대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수 롯데백화점 빅데이터팀장은 “편리미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백화점 푸트코트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선보인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개미 무덤’ 된 증시… 반대매매 시한폭탄 터지나

개인 ‘빚내서 투자’ 대폭 늘어
코스닥 신용융자잔고 5.7兆
증권사 “담보부족 계좌수 급증
하락 지속땐 반대매매 가능성 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하락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은 만큼 증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5조7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연초 5조1000억 원대를 유지했지만, 24일 5조9100억 원으로 올해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테마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

락장이 이어질 경우 단기 악재로 여겨진다. 반대매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주가가 하락해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 밑으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 매도해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청산 절차를 의미한다.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반대매매 주식수와 매도가가 정해진다. 이에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고 증시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실제 이번주 초부터 증권사 지점 사이에서 담보부족 계좌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를 사

용한 고객계좌에서 2회차 담보비율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담보비율 부족 3영업일에 강제로 주식을 매도한다.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28일에만 담보부족 계좌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통상 지수가 1% 정도 하락하는 시장에서 나오는 담보부족 계좌수와 비교하면, 이보다 다섯 배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시장이 하락할 경우, 현금 상황이 좋지 않은 신용계좌 중심으로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신용거래잔고 비중이 높은

기업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8일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거래융자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텍스터(13.43%)다. 이어 우수AMS(11.87%), 키이스트(11.62%), 브이티지엠피(11.38%), 중앙백신(11.12%), 제일바이오(10.57%)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 기존 포트폴리오를 비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향후 시장 하락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대다수가 비관적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정희 기자 ljh@

“친환경 합성피혁 신소재 개발… 실적 개선 기대”

CEO 인터뷰

최민석 디케이앤디 대표

신발 소재 글로벌社 주문 앞뒀
올해부터 생산·매출 반영 예정
의류·IT 용품 케이스 개발 목표
베트남 공장 증설 상품 다양화

“최근 소재 업계에선 글로벌 기업들의 ‘에코-프렌들리’(Eco-Friendly) 변화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찍 친환경 합성피혁 소재 개발에 집중했고,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가 매출로 반영될 예정이다.”

디케이앤디(DK&D)가 고부가가치 합성피혁 제조를 통해 실적 개선에 시동을 건다. 작년 제품 개발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주문 생산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한다. 생산이 본격화되면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석 디케이앤디 대표이사(사진)는 이투데이와 만나 이 같은 사업 계획



을 밝혔다. 그는 1988년 대학 졸업 후 합성피혁 공장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30년 넘게 합성피혁 산업 외길을 걸었다.

2000년 설립된 회사는 2014년 합성피혁 제조 기업인 두립테크를 인수하면서 현재와 같은 외형 틀을 갖추게 됐고, 2018년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디케이앤디가 만드는 합성피혁과 부작품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하다. 의류, 신발, 가방부터 시작해 자동차, 항공사 시트 등까지 일상생활에서 입거나 즐기는 모든 분야가 잠재적인 시장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나이키, 샘소나이트 등 글로벌 브랜드 상품 소재로 쓰인다.

최 대표는 거래처들의 수요에 한발 앞서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주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페트병 등 재활용 소재를 혼합해 만든 재생 폴리에스테르를 아이템별로 30~50%가량 섞어야 하는데, 원사 자체를 바꾸면서도 제품 품질은 유지해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작년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연속이었다. 각 거래처 제품 특성에 맞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 작업도 수없이 반복했다.” 최 대표의 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판매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신발 소재는 개발이 완료돼 6월 글로벌 업체의 정식 주문을 앞두고 있다. 차량용에서는 5개 제품을 개발했는데 2개를 제외하곤 열추 틀이 완성된 상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IT 용품 케이스 부문까지 친환경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부작품 생산을 위주로 하는 베트남 공장에는 산업 자재, 위생자재 생산 설비까지 증설해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단기내 내 무리한 사업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다져 목표치를 하나씩 성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대표는 무차입 경영 지향과 양호한 부채비율을 회사 장점으로 강조하면서 “성공이 확실한 분야에 적기에 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코로나19에 글로벌 증시 ‘출렁’ 38일 만에 시총 7300조 ‘증발’

블룸버그 86개국 시총 집계
美 감소액 2조3878억 달러 ‘최다’
韓 ‘1904억 달러’ 6번째로 많아
中, 경기부양 정책에 나뭇목 회복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불과 38일 만에 약 7300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블룸버그가 86개국 증시의 시총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현재 이들 주요국의 증시 시총은 83조1576억 달러(약 10경1053조 원)로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고점인 1월 20일(89조1564억 달러)보다 5조9988억 달러(6.73%) 감소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8일 만에 7290조 원이 증발했다. 이는 2018년 기준 1893조 원인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 증시의 시총이 35조5154억 달러에서 33조1276억 달러로 2조3878억 달러(6.72%)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다. 이어 일본(6조2739억 달러→5조6631억 달러), 홍콩(5조6858억 달러→5조3327억 달러), 영국(3조4479억 달러→3조1328억 달러) 등 순으로 시총 감소액이 컸다.

조사 대상 86개국 중 76개국은 증시 시총이 줄었으나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카자흐스탄 등 10개국은 늘었다.

이 기간 한국 증시의 시총(1조4768억 달러→1조2864억 달러)은 1904억 달러 줄어 감소액이 6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세계 주요 증시 시총 변화 (단위: 억 달러, %, 1월 20일~2월 27일 기준)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전 세계	5조9988	6.73	한국	1904	12.89
미국	2조3878	6.72	호주	1664	11.62
일본	6107	9.73	독일	1654	7.26
홍콩	3531	6.21	브라질	1629	14.97
영국	3150	9.14	캐나다	1500	6.27
프랑스	1905	6.92	중국	520	0.66

※ 출처: 블룸버그

감소율로 보면 한국은 12.89% 줄어 조사 대상국 중 10번째였다.

한국보다 시총 감소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35.85%), 아르헨티나(-15.21%), 브라질(-14.97%), 태국(-14.89%), 인도네시아(-14.81%), 칠레(-14.65%), 레바논(-14.11%), 터키(-13.98%), 러시아(-13.12%) 등이다.

중국은 춘제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지난달 3일 하루에만 시총이 7210억 달러(9.61%) 줄었으나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확산 정체 등에 힘입어 증시가 나뭇목 일부 회복하면서 이 기간 시총(7조8510억 달러→7조7990억 달러) 감소액이 520억 달러(0.66%)에 그쳤다.

특히 최근 열흘간만 보면 중국 증시의 시총은 1215억 달러(1.58%)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 증시는 1478억 달러(10.31%) 줄어 86개국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한동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 증시의 시총은 이 기간 2조8558억 달러(7.94%) 줄었고 일본 증시 시총도 4208억 달러(6.92%) 감소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커지는 적자 규모… 부채비율 283% ‘악화’

한계기업 돋보기

전방

과거 한때 국내 면방직업계 2위였던 전방의 한계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적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재무안정성 역시 거듭 악화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방은 지난해 연결기준 30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375억 원으로 7.9% 감소했으며 순손실은 403억 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회사 측은 “원료시장의 불균형과 대내외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원가를 밀도는 판매가격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방은 1953년 설립해 1968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면 방직업체다. 현재 최대주주는 삼영엔지니어링(4.48%)이며 정덕재 단(6.77%), 전산텍스(2.87%)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8.7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방은 2010년까지만 해도 일신방직에 이은 면방업계 2위를 지켰지만 이듬해부터

전방 연결재무제표 추이
(단위: 억 원, %)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	1,825	1,493	1,375
영업이익	-85	-25	-305
순이익	-130	-233	-403
부채비율	177.7	191.3	283.1
차입금의존도	50.2	52.4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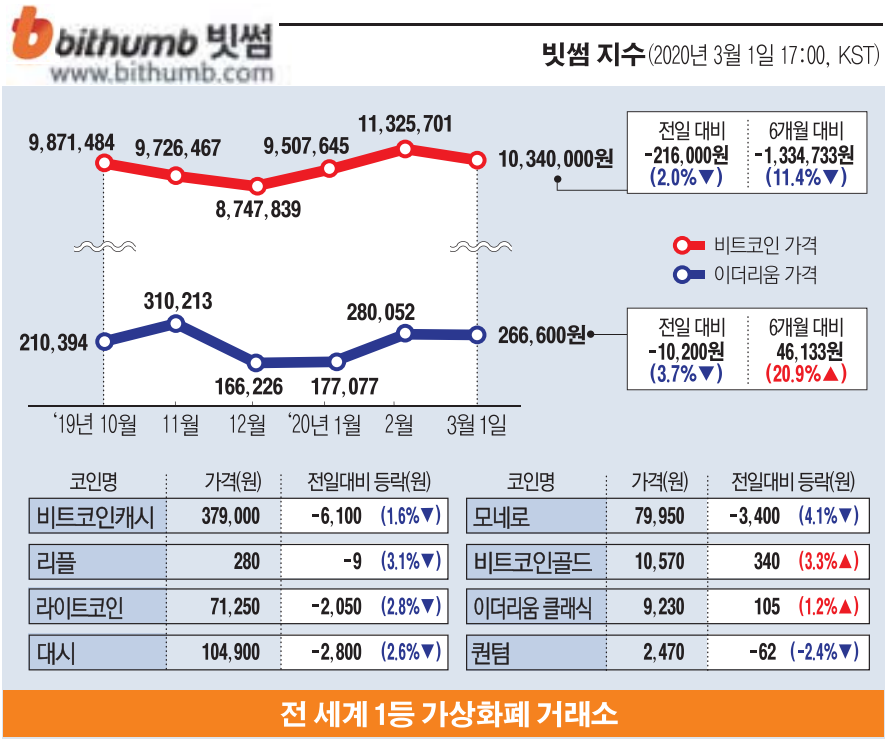
※는 2019년 3분기 기준

‘매출 원가 > 매출’ 적자 고착화
작년 순손실 403억 전년비 2배 ↑
차입금 이자비용만 100억 달해

동일방직에 자리를 내줬다. 2012년에는 시장 구도가 1강(일신방직), 3중(전방, 경방, 동일방직)으로 재편된 상태다. 전방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시장점유율을 잃어 2018년 기준으로 4개 업체 중 최약체로 밀려났다. 전방은 2010년 면사 파동에 최대 매출 3308억 원을 기록했다. 그해 영업이익도 22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1~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200억~300억 원대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2013년 73억 원 규모로 마지막 흑자를 냈다.

전방의 매출은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줄어 2012년 3000억 원대, 2017년 2000억 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전방은 경영·재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총과 광주, 천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일부 공장은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도 했다. 이에 2012년 말 800명이 넘는 임직원 수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333명으로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16년부터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매출 원가가 매출보다 더 많은 적자 구조가 고착화됐다.

2018년 들어서는 누적된 잉여금이 매년 발생한 순손실에 결손금으로 뒤바뀌면서 재무 레버리지 역시 악화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2015~2018년까지 200% 미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4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에 자본총계가 급감하면서 부채비율은 283.1%로 뛰었다. 수익 부진에 현금도 돌지 않으니 차입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6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외부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한 해 100억 원 안팎에 달해 현 적자사업 구조에서 자체 빚상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강남4구 ‘찬바람’

서울 아파트 거래 ‘히비’

〈성북·노원·도봉·강북구〉

동북4구 ‘봄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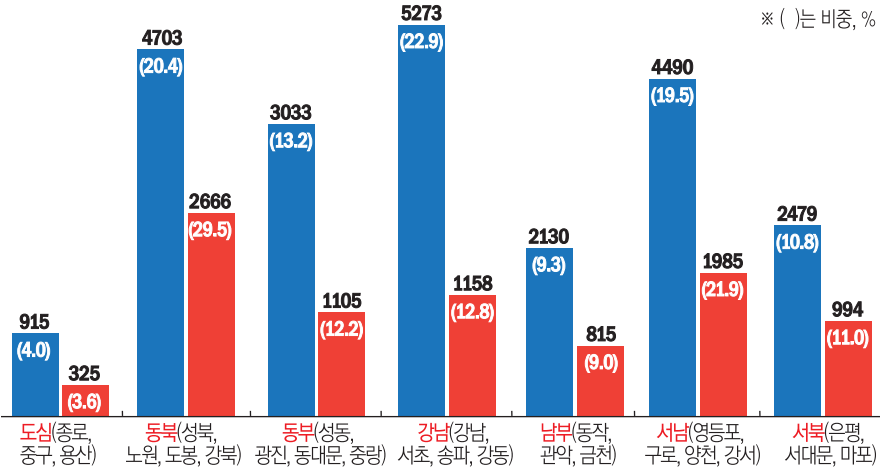
성북·노원·도봉·강북구 ‘활기’
12·16대책 후 거래량 30% ↑
정릉풍림아이원 1.7억 ‘경총’
강남4구 매매 비중 13%로 ↓
헬리오시티 올들어 거래 ‘0건’

12·16 부동산 대책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 거래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 영향권에서 비켜선 서울 동북권에선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2월 체결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계약은 1일 기준 9048건이다. 12·16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체결된 계약 건수(2만3023건)보다 절반 남게 줄었다.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60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권역별론 동북4구(성북·노원·도봉·

서울 시내 권역별 아파트 매매(단위: 건)



강북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지난 2달 동안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29.5%(2666건)가 동북4구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10~11월 동북4구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했던 비중(20.4%)보다 9.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2단지(5위),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6위),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서울한양아파트(10위)를 뺀 7곳

이 동북4구에 몰려 있었다. 올 들어 매매 거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다. 총 383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에선 지난 두 달 동안 매매 계약 77건이 체결됐다. 2위와 3위인 각각 강북구 수유동 삼성쉐르빌,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이 올랐다.

동북4구 아파트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덕에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풀이한다. 12·16 대책에서 정부가 정한 규제 선보다 이들 지역 아파트값이 저

렴하기 때문이다.

이달 성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각각 6억5049만 원, 5억8878만 원, 5억1393만 원, 5만2531만 원이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내놓은 대출 규제 강화 기준인 9억 원에 못 미친다.

거래가 꾸준히 이어진 덕에 몸값도 오르고 있다. SK북한산시티 전용 84㎡형은 이달엔 호가가 6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5억4800만 원에 매매됐지만 12·16 대책 후 석 달 만에 시세가 8000만 원 넘게 뛰었다. 12·16 대책이 나오기 이들 전 5억1000만 원엔 팔렸던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114㎡형도 이젠 6억8000만 원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다.

정릉동 P공인 관계자는 “12·16 대책 이후로 중형 위주로 이 지역 아파트 매물이 소진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선 아파트 매매 거래가 얼어붙었다. 올 들어 강남4구 아파트 매매(1158건)가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떨어졌다. 지난해 10~11월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활발한 지역(22.9%)이었다.

입주 가구가 9510가구에 달해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도 올 들어선 매매 계약이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역시 5000가구가 넘는 ‘매머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6864가구)와 잠실동 리센츠(5678가구)는 매매 계약이 각각 8건, 10건 신고됐다. 지난해 하반기 이들 단지에선 한 달에 수십 건씩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12·16 대책 여파가 이어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관내 아파트의 90% 이상, 송파구에선 약 80%가 시가 9억 원을 넘어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16 대책으로 강남 고가아파트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강북 저가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다”며 “한동안 9억 원 이하 강북권 아파트들의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아파트값 22개월째 하락에 미분양 속출 한숨 커진 제주 주택시장

한한령·집값 거품 부정적 영향
작년 전입보다 ‘脫제주’ 많아
노형e편한세상 올들어 1.8억 ↓
동홍동 센트레빌은 청약 미달

제주 부동산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은 22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새 아파트는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며 미달 사태를 낳고 있다. 외국인들이 몰려들며 투자 열풍이 불었던 몇 년 전과는 완전히 판판이다.

1일 한국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레빌’ 아파트는 지난달 25~26일 1,2순위 청약이 진행됐지만 총 20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45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용면적 78㎡형을 제외한 59㎡(9가구 미달), 84.91㎡(33가구), 84.97㎡(17가구) 등 대부분의 주택형이 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채 미달로 청약을 마무리했다.

제주지역은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은퇴한 노년층,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을 위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의 이동 등으로 한때 거센 투자 열풍이 불었다. 2009년 이후부터 제주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 서울에서 제주로 전입인구가 더 많았다. 2015년 서울에서 제주의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4083명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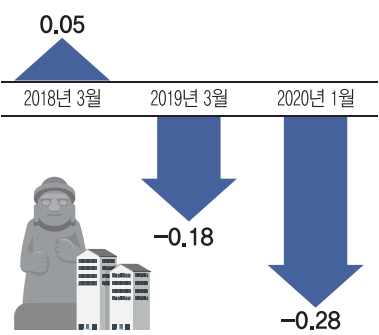
하지만 2016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2016년 3831명으로 줄어든 순이동은 2017년 3195명, 2018년 2109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엔 제주에서 서울로의 순이동이 오히려 더 많았다. 10년 만에 탈(脫)서울보다 탈(脫)제주가 많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단위: %) ※출처: 한국감정원



한한령(중국 내 한류 제한령)을 비롯해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겹겹이 쌓인 영향이 컸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주택시장에 그대로 옮겨붙었다. 2015년 연간 최고 13.78%까지 상승했던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3.66% 하락했다. 제주 아파트값 하락세는 전달까지 2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최고 8억30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제주 노형동 노형e편한세상 전용 125㎡형은 올들어 6억50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같은 지역 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20㎡형은 지난달 5억45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가격이 6억 원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약 6000만 원 빠졌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목적으로 제주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급감하고 있는데 제주에 터를 잡으려는 인구마저 줄어들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주 는 관광산업이 주력인 곳인 만큼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입 감소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주2공항 건설 등의 호재는 아직 남아 있지만 이는 아파트보다는 토지시장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관리 강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 매년 점검
위반then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접수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이뤄진다. 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준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수조사에 앞서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지난 2012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가 아직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2012년 이후 임대차 계약 현황을 자진 신고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하게 된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도 환수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시장도 위축된 상태지만 신규 분양시장엔 3700가구가 공급되며 실수요자의 관심 끌기에 나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총 10개 단지, 3740가구(일반분양 3449가구)가 분양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아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아이’ 등이 청약을 받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는 과천제이드아

이는 지하 2층~지상 25층 최고 7개동 전용면적 49~59㎡ 647가구 규모다. 모든 주택형이 소형으로 이뤄져 젊은 층 중심의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5만 원으로, 현재 과천 시내 아파트 가격이 3.3㎡당 평균 4400만 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로,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청약 조건 등이 까다로워 요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12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서면스위트

엠골드에비뉴’,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계약을 하는 단지는 4곳이다. 울산 중구 학성동 ‘동남하이빌’, 부산 연제구 연산동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5개 단지에서 문을 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쌍용더플래티넘잠실’, 경기 고양시 신원동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대성베르힐’ 등이 이번 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2 (월)	접수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2순위
		부산	연제구	연산동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 ♣
	발표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공공임대)
3/3 (화)	접수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아이 1순위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아이 1순위
	발표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파트 1순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서면스위트엠골드에비뉴
3/4 (수)	접수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아이 2순위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아이 2순위
	발표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파트 2순위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 ♣
3/8 (일)	접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발표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 ♣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파트 2순위
3/9 (월)	접수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아이 3순위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아이 3순위
	발표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파트 3순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서면스위트엠골드에비뉴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한화디펜스, 정부서 100억 돌려받는다

재판부 “원가자료 허위 제출 아닌 과실… 이윤 삭감 제재는 부당”

정부,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한화디펜스가 정부의 행정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한화는 협력업체의 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2017년 방산물자 계약 당시 100억 원대의 이윤율을 삭감당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한화디펜스가 정부를 상대로 “경영노력보상점수 20점 감점에 따라 삭감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화디펜스는 2011~2015년 방사청으로부터 장갑차와 자주포 외주 정비 계약 16건을 수주했다. 당시 한화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 등 하위 부품을 공급받았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

모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청은 매년 ‘이윤율’을 정해 업체에 통보하는데, 납품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윤율을 일부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한화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부품 가격을 산정할 때 ‘중소기업 가산율’을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방사청이 협력업체들에 이윤율을 통지하면서 중소기업 가산율 50%가 적용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업체들은 가산율을 추가로 적용한 원가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정부는 2016년 한화의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가산율을 중복으로 적용해 원가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한화디펜스도 3년간 경영노력보상점수 20점이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경영노력보상점수가 20점 감점되면 물품 원가의 2%에 해당하는 이윤율이 깎인

다. 이로 인해 한화는 2017년 계약 가운데 100억 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의 이윤이 삭감됐다. 또 2015년 이후 체결된 계약 중 2017년까지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계약에도 이를 적용했다. 한화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정행위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화가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상 원가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한화가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해 정당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한화에 ‘허위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과실을 넘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매화마을에 찾아온 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화축제가 취소된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 1일 오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증금 30%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0명 모집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40%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면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9~31일 인터넷 신청을 받아 5월 22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2019년 말 기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해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설경진 기자 skj78@

법원 “공사현장 사망사고 제재 대상 ‘토목업’ 한정해야”

“등록업종 전체 영업정지는 과도”… 쌍용건설, 서울시에 승소

공사 현장에서 감독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을지라도 건설사 등록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충남 부여군부터 전북 군산시까지 연결되

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47.2%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9월 하도급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A(58)씨와 B(57)씨 등 2명이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상하수도관 내부에 차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가동 중인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5월 쌍용건설과 하도급 회사 등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

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7월 쌍용건설 등에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쌍용건설은 “토목공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건축공사업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발생해 위반행위가 이뤄진 업종이 토목공사업이므로 영업정지의 제재는 단순히 그 등록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할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업’에 한정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렇지 않았기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박영사-박진우 지음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엔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박영사

올 10만척 선박 검사...해양사고 절반 줄인다

해양교통안전공 출범 2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안전을 강화하고 자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올해 2년 차를 맞았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979년 설립된 한국어선협회가 모태다. 이후 1998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설립했고 1999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2007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인수하면서 2019년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재출범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다. 특히 공단은 출범하면서 '10년 이내 해양사고 50% 줄이기'라는 큰 목표 아래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행복한 바다' 만들거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이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관손상 및 화재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기관손상 사고 예방 점검 3109건, 화재사고 예방 점검 2990건을 했다. 사고 다발 선박 등 안전관리 취약 선박에 대한 검사원 전담관리 강화(1:1 관리)를 통해 2017년 65척, 2018년 92척, 지난해 109척으로 크게 늘렸다. 검사 공백기 선박종사자 현장교육 및 각종 설비 무상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경영평가 계량지표와 연계한 활용 강화로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무상점검의 경우 지난해 목표는 6238척이었으나 실제 8364척(34.1%)이 이뤄졌다. 이런 성과 속에서도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낸다는 각오다.

올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우선 모든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위해 어선, 화물선, 여객선 등 10만여 척의 선박검사와 160여 척의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한다. 선박검사 제도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콤사 코드(KOMSA Cod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 1일 재출범 이후 '10년 이내 해양사고 50%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 검사 모습.

안전한 바다
지난해 무상검사 목표 초과 달성
인천·목포에 선박안전센터 추진

깨끗한 바다
연안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강화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발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박검사 제도 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고 취약선박 전담관리, 시물레이션 분석 등을 활용한 안전 점검을 확대·추진하고, 안전기술정보 제공 등 현장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시스템 개발과 미래 해양교통환경을 대비한 친환경 플라스틱 선박 및 전기복합 추진 어선 연구에 나선다. 연안해운 온실가스 및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

화하고 국제해운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 운용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대기환경 관리제도 이행에도 만전을 기한다.

공단은 또 올해 해양교통안전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해사사무추진을 위한 국제해사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IMO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의제개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사업·기술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또 해양교통 이용자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권역별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으로 선박검사, 선박안전점검 및 맞춤형 체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사고 정보, 기상정보 등 해양교통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제안 및 기술개발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안전기술연구 등의 업무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해양교통 안전체계 구축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규 업무를 추진한다. 해양교통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분산된 각종 해양정보를 통합 분석해 선박 안전관리, 기술연구, 안전문화 확산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난해 기상청, 한국해운조합 등 주요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료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법 제정을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위상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018년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달성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우수' 기관 및 해양수산부 주관 공직복무관리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목표와 인천에 197억8000만 원(1개소당 98억90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검사소와 같은 권역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신 장비를 활용, 선박 검사 고도화와 안전점검, 현장 체험형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농협 전국 하나로마트 마스크 165만 장 공급

농협중앙회가 마스크 공적 판매처 지정 이후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165만 장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농협은 1일 서울·경기지역 319개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110만 장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애초 서울·경기지역 특별공급을 55만 장으로 계획했으나 정부와 협조해 긴급히 55만 장을 추가 조달해 2배인 110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판매 수량은 1인당 5매였고 마진 없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농협은 지난달 27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28일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 29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하나로마트에 마스크를 특별공급한 데 이어 1일에는 서울·경기지역 하나로마트에 마스크를 특별공급했다.

농협은 그간 물량 확보에 노력해 온 결과 이번 주부터 보다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농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공적 물량 판매방식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균형 있게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www.nhhanaro.co.kr)와 농협몰 홈페이지(www.nonghyupmal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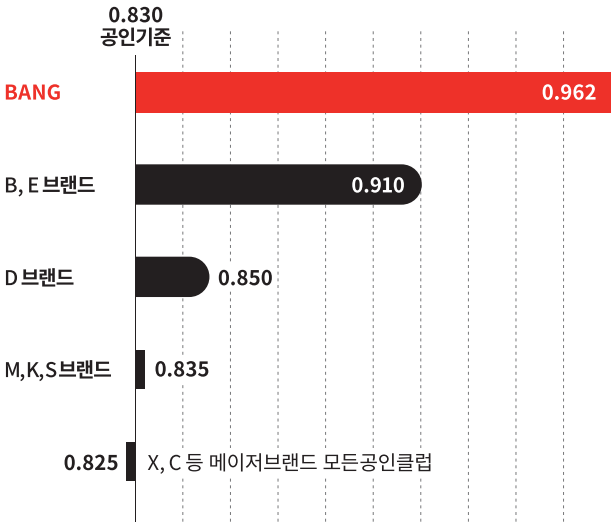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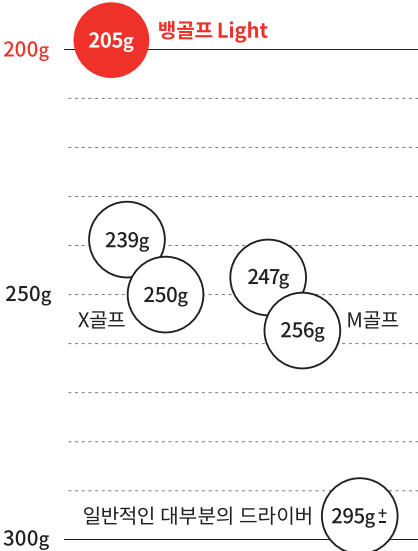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한 번뿐인 대학시절, 스펙쌓기보다 사회봉사를”

장재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무국장

앞날에 대한 두려움...봉사 통해 삶의 방향타 얻을 수 있어
“안전 최우선” 1월 필리핀 봉사단 코로나 우려로 조기 귀국

“단원들의 안전이 해외봉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장재운<사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 사무국장이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사협은 1996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총 247개 회원 대학의 대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는 단체다.

대사협은 1월 6개 나라(라오스·미얀마·우즈베키스탄·케냐·필리핀)에 총 192명의 대학생 봉사단을 2주 단기로 파견했다. 이 가운데 설 연휴에 파견된 필리핀팀은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조기 귀국했다. 이들은 애초 2월 11일에 국내에 들어오려 했으나, 5일 빠른 2월 6일

귀국했다. 당시 필리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조기 귀국’을 택한 것이다.

장 사무국장은 “해외봉사에 있어 ‘단원들의 안전은 ‘0순위’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아무래도 이에 대한 필리핀 단원들의 아쉬움도 컸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로 “대학생 봉사 시기의 특수성”을 꼽았다. 장 사무국장은 “대학 재학생 시절 동안의 개도국 봉사활동은 입시에 치중했던 학창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앞날과 인생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고민한다”면서 “이를 통해 단원들은 인생의 긍정적인 경험과 삶의 방향타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학생 봉사 시기의 특수성’을 코이카(KOICA)의 일반봉사단 규모를 단계적으로 키우는 데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사무국장은 “최근 코이카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봉사단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이카는 대

사협 대학생봉사단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해외봉사 파견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기관이다.

이어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각종 스펙 쌓기에 매달리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장 사무국장은 “10대는 입시 전선에 매달리고 20대 초로 들어와 대학 진학 후에는 취업 전선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상과 낭만을 즐겨야 할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금기인 대학 시절을 이같이 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생 봉사 경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개도국 해외봉사로 어려운 지구촌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나누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에 자신이 생기고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확고해지거나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손현경 기자 son89@

공정위 비상임위원 최윤정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47)를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양세정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최윤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산업조직론, 응용미시경제학 전문가로, 일본 도쿄대 조교수, 경희대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협약평가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세종=서병문 기자 sbg1219@



보건의료정보원 초대 원장 임근찬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초대 원장에 임근찬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이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임근찬 원장은 보건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고,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에 기여했다. 1990년부터 정보화 업무를 시작해 주식회사 KT 부장,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복지정보·복지정보기획과 과장,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본부장,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홍상수 ‘도망친 여자’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연인’ 김민희와 7번째 작품
“여배우들에게 박수 보내달라”

홍상수 감독이 24번째 장편 ‘도망친 여자’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폐막한 올해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최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주요 부문 4관왕을 휩쓴 데 이어는 낭보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연인이자 영화의 주연을 맡은 김민희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홍 감독은 시상식 무대에 올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나를 위해 일해준 사람들,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허락한다면, 여배우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배우 김민희, 서영화가 일어나 함께 박수를 받았다.

홍 감독은 ‘밤과 낮’ (2008),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2013), ‘밤의 해변에서 혼자’ (2017)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주연 김민희에게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안겼다. 홍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과 베를린,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자신의 작품과 관련해 수상 영예를 안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8년 ‘강원도의 힘’이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특별언급상, 2010년에는 ‘하하하’가 같은 부문 대상을 탔다.

‘도망친 여자’는 결혼 후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던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과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과거 세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감희’를 따라가는 영화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7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서영화와 송선미, 김새벽, 권해효 등이 출연했다.

최고상인 황금곰상은 이란 출신 모하마드 라슬로프 감독의 ‘데어 이즈 노 이블(There Is No Evil)’이 받았다. 라슬로프 감독은 현재 이란에서 출국이 금지돼, 영화에 출연한 그의 딸이 대신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홍석동 기자 hong@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 감독상을 받은 후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기생충’ 트로피 하나 더 추가
佛 세자르 외국어영화상 수상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프랑스의 오스카로 불리는 세자르상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프랑스영화예술아카데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리 시내 샬 플레엘 극장에서 열린 제45회 세자르상 시상식에서 봉 감독

의 기생충을 외국어영화상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생충’이 작년에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프랑스 칸 영화제와 달리 세자르영화상은 프랑스 영화인들이 1976년부터 매년 우수한 프랑스 영화에 주로 시상하는 프랑스 영화 최대 축제다.

이날 세자르상의 작품상은 라주 리 감독의 ‘레미제라블’에, 감독상은 ‘장교와 스파이’를 연출한 로만 폴란스키에게 돌아갔다.

BBDO코리아, 김장용 대표이사

글로벌 광고대행사 BBDO코리아가 1일 김장용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장용 대표는 제일기획, TWBA 등 국내 굴지의 광고 대행사에서 아모레퍼시픽, 매일유업, CJ푸드빌, 동아제약, 아디다스 등의 광고주를 위한 IMC 캠페인을 이끌었고, 3개월 전 BBDO에 합류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손흥민도 英 가면 2주 자가격리
무리뉴 “바로 훈련장 합류 못 해”

부상으로 한국에 머무는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8·사진)이 영국으로 돌아가도 곧바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영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BBC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9일 “토트넘이 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손흥민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영국 정부의 대응을 따르기로 했다.

조제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구단은 정부와 당국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손흥민이 서울에서 돌아와도 곧바로 훈련장에 합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자가격리되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0 런던 풋볼 어워즈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코로나19 극복...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자”

이재웅, 靑 국민계시판에 직접 청원 올려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

임한 26년차 기업가”라며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렸다”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각하고,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다”라며 “경제에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기본소득을 50만 원씩 1000만 명에게 주면 5조 원, 2000만 명에게 주면 10조 원”이라며 “20조 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일반에 공개된 이 청원은 동의자가 이날 오후 6시 현재 3000명을 넘어섰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부음

▲박희규 씨 별세, 천희자 씨 남편상, 박기태·기형·명희·명주 씨 부친상, 최낙송(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씨 장인상 = 1일, 월낙원 서울장례식장 5호실, 발인 3일, 02-3420-5356

▲김영택(전 국제해운 총무부장) 씨 별세, 김상호(서울시청 주무관)·상혁(KB증권 프로젝트금융4부 이사대우) 씨 부친상

=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02-2072-2019

▲박구일 씨 별세, 박재연(SBS 콘텐츠 파트너십팀 부장) 씨 부친상 = 1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3일, 장지 대전현충원, 02-2258-5940

▲최임순 씨 별세, 남부호(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씨 장모상 = 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20분, 02-2227-7500

▲홍준순 씨 별세, 최한명(풍산홀딩스 부회장) 씨 모친상 = 2월 29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2일 오전 11시, 02-3010-2000(조문 사양)

▲완다 말린 테일러 할리 씨 별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방송인) 씨 모친상 = 25일(현지시간), 장례식 7일 오전 11시, 장지 미국 유타주 메이플톤 에버그린 가족묘지, 1-801-793-08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직접 감사 인사해야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가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가정이든 국가든 월급을 벌여오거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과세권자의 대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납세자의 날’ 행사에 꼭 참석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시길 기대한다.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로 장관이 참석한다. 다만,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 1970년대 ‘조세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참석한 기록은 있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조세의 날’은 1967년 시작됐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하여 기획재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2000년부터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당초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2011년 12월 28일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납세자는 모든 국민이 해당된다. 어린이도 식품, 학용품 등에서 세금을 부담한다. 국민은 헌법에 의거해 태어날 때부터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

는 국가의 주권자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세금은 국민이 만든다.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어 정부가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과세권자로서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예산편성권도 갖는다. 국회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정부는 각종 세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조세법을 주의에 따라 공평하고 조세 정의에 부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조세 심판 청구 건수는 최근 늘어만 가고 있다.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민들이 세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불만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지출을 집행한다. 정부는 최근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편성했다. 2018년 432조 원,

2019년 475조 원, 2020년 512조 원으로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납세자의 부담이 잠재 경제성장률보다 몇 배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 살림엔 반드시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정 소수에게 편중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8년에 근로자 1800만 명 중 41%가 면세자이다. 법인세도 총 신고 법인 74만 개 중에서 48%가 면세자였다.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으나, 비과세 혹은 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을 면세자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면세자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중 일부만이 납세자로서 세금을 크게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8년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자

1800만 명 중 10%가 근로소득 결정세액 중 75%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에도 74만 개 신고 법인 중 0.4%인 2958곳의 법인세 부담세액이 78%였다. 이는 국민 중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매우 극소수라는 것을 말해 준다. 특정 납세자에게 너무 과중하게 편중된 세금제도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저소득층에게 조세 전가를 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세금은 인간의 자유를 위축시켜 창의성과 능력 발휘를 제한하며,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를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세금의 세원은 넓게 하고,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가정이든 국가든 월급을 벌여오거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과세권자의 대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납세자의 날’ 행사에 꼭 참석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시길 기대한다.



안승호의
오! 마이마켓

승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

코로나19 질병이 이제 모든 시민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땅’, 즉 신전지를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걸어가야 한다. 지금 당장 수많은 생명이 백적간두에 서 있는데 백서가 무슨 소용이나 하겠지만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질병 확산이 시장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위험 요소가 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빈도를 보면 대충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시장경제를 멈추게 하는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빈도와 함께 그 파급력을 보아야 하는데 사태가 반복될수록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스페인독감 이후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 정도 빈도와 파급력이라면 기업들은 질병 확산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장기적 전략이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비록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미리 보는 ‘시장경제 코로나19 백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소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핵심적 소재라면 단일 지역, 단일 국가를 벗어나 공급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자금 운영은 시장경제가 멈춘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기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여유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전염병뿐만 아니라 외교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면세점과 같은 산업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산업의 위험도와 목표 수익 수준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염병에 따른 계약 이행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업적 계약에는 별도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작업동선 변경에 대한 응급 매뉴얼과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 결재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최근 통신과 컴퓨터 분야의 획기적 기술 발달로 비대면 교류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 확산은 관련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오프라인 업체는 반드시 비대면 교류를 위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

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식품과 같은 상품은 품질의 손상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공되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일부 소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영업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프라인의 음식 가격은 오히려 온라인보다 저렴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이 확고해진 만큼 쇼핑의 효율성과 재미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쇼핑 거리와 쇼핑 지역은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위생에 더 높은 차원의 관심을 보일 것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의 전통시장이라고 알려져서 국내의 전통시장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위생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거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스스로 인한 해외 관광객 감소로 한동안 소매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뼈아픈 경험이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식품 관리

와 매장 내 위생 관리에 매우 적극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싱가포르의 위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최고 수준의 음식점은 주방 위생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중간에 주방을 마련한다. 화장실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거나 휴지통 위치도 위생을 고려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 판단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반응에 대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 상황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 이행 불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보나 마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수조 원의 추정 예산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미 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기업과 소비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늘어난 예산은 추가적 세금 부담을 의미하며 외부 충격에 면역력을 거의 상실한 시장경제 주역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미하일 고르바초프 명언
“위험은 변하지 않은 이에게만 찾아온다.”
구(舊)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최초의 대통령을 지냈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해 국내의 개혁과 개방뿐 아니라, 동유럽의 민주화 개혁 등 세계 질서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다. 그는 1931년 오늘 태어났다.

☆ 고사성어 / 무위이화(無爲而化)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교화한다는 뜻. 억지로 꾸밈이 없어야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노자(老子)의 말로, 백성을 교화함에 있어서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노자 제57장 순풍(淳風)이 원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되고[我無爲而民自化] 내가 고요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我好靜而民自正]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我無事而民自富]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소박해진다[我無欲而民自樸]”

☆ 시사상식/밸리효과(valley effect)
올림픽 후유증. 올림픽을 치르기 전 개최국은 경기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상승세를 타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갑자기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에 빠져든다. 브이로 효과(V-low effect)라고도 한다.

☆ 우리말 유래 / 미망인(未亡人)
‘미처 죽지 못하거나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다. 사대부 집에서 남편이 죽으면 미처 따라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 있다는 의미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남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부르던 말. 성차별적 단어란 지적이 제기된 이후 ‘고(故)○○씨의 부인’으로 고쳐 쓰고 있다.

☆ 유머 / 확실한 금연 경고문
국회의원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자 법안을 발의하자 한 네티즌이 제안한 담뱃갑 경고문.
‘경고 - 이 담배 판매 수익금은 모두 국회의원들의 세비로 쓰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정말 심각하다. 장 마감 후 담보 부족 계좌 수가 급증한 걸로 집계됐다. 증시도 안 좋는데 반대매매 물량까지 나오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의 말이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장중 1980선까지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팔을 뻗었다. 지난 2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각각 3조8926억 원, 712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 매수세는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은 4조183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는 외국인, 기관 물량을 모두 받아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매수세는 코로나19 테마주에 집중됐다. 코스피,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중

기자수첩



이정희 자본시장1부/ljh@

코로나 공포에 베풀었던 재미들

목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테마주는 연일 급등했다. 마스크를 시작으로 진단키트, 백신개발, 음압병실, 원격교육, 택배, 종이제지 등 여러 테마주로 매일 수급이 쏟아졌다. 시장이 어지러울수록 ‘재료’를 찾아 주가를 띄우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먹힌다. 심지어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도 테마

주로 엮여 급등락을 반복했다. 개인투자자만 사들은 시장에서 신용거래가 늘어난 점도 우려를 더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전체 신용거래용지는 1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 신용거래용지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보유 종목의 주

코로나19가 바꿀 금융지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변수가 2020년 금융시장에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흐름이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코로나19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9%를 기록하고 올해 3.3%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World Bank)·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도 같은 기조로 올해 경제를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IMF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2020년에도 지난해 어려운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블 딥(double deep)’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산업지도 그리고 금융시장 지도를 바꾼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극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태풍을 몰고 올까. 자금의 마스্ক 대란이 보여주고 있듯 소비자들의 심리적 동요 자체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지 선부터 상황 인식조차 조심스럽다. 이달 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번질 때만 해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담담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 이탈리아에서 집단 발병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과 유럽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금과 함께 안전자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손꼽히는 미국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졌다. 이날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비슷했다. 중국의 선전종합지수는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전장보다 4.93% 내린 채 거래를 끝냈고, 상하이종합지수는 3.71% 내렸다. 일본의 토픽스 지수와 닛케이 225 지수는 각각 3.65%, 3.67% 하락했다. 호주 ASX 200 지수는 3.25% 떨어졌다. 모두 미국 증시 폭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190.95포인트(4.42%) 하락한 2만5766.64에 거래를 마쳤다. 포인트 기준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다우지수 12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1987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보다도 큰 역대 최대 낙폭이다. 당시 다우지수는 2200선에서 1700선으로 508포인트(22.6%) 내렸다. 아시아, 유럽에 이어 미국 본토까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 미국 달러가 먼저 쏠린다. 금도 전통적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 개념에는 통상 유로화도 포함된다. 다음이 일본 엔화다. 안전자산 대열에 들어갔던 엔화가 최근 맥을 못 추고 있다. 통상 일본은 선전 금융시장으로 분류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만큼은 지위가 상실돼 엔화 자산이 급하강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주 미국 달러 대비 2% 이상 가치가 떨어졌다.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엔화는 통상 글로벌 경제가 출렁거릴

때마다 강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예외적인 모습이다. 일본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 이번 사태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안전자산의 차별화를 촉발하면서 ‘진짜 안전자산’이 가려지는 것 같은 분위기 도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도 관심이 큰 대목이다. 앞서 소비자들과 기업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가장 먼저 급락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15년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창궐했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그해 4월29일 국내 첫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하자 5월13일에 한은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00%로 내렸다.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나오자 6월 11일에 1.50%에서 1.25%로 낮췄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 번에 25bp씩 내린다면 0%까지 총 5차례 인하 여력이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또는 0%까지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 자본 유출을 감안해 이른바 실효 하한을 고려해야 한다. 대략 0.75%나 1.00%가 낮출 수 있는 기준금리의 마지노선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넘치는 유동성, 초저금리로 인한 금융시장 후폭풍,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다. 수많은 규제 정책으로 묶어놓은 부동산 가격이 기준금리 인하로 다시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이다. acw@

사설

기업 현장 섰다운 공포, 경제 앞이 안보인다

2월 한국 수출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지난해와 달리 설연휴가 1월로 앞당겨지고 윤년 효과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3.5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하루 평균 수출은 1월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가 2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 회복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타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2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4.5% 증가한 412억6000만 달러였다. 2018년 12월부터 지속된 하락세에서 반등했지만 하루 평균 수출은 18억3000만 달러로 11.7% 줄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위축됐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국 수출이 1월 10.7% 줄어들었고 2월에도 89억 달러로 6.6% 감소했다. 하루 평균 수출은 21.1%나 쪼그라들었다. 특히 중국 내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자동차와 부품,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등의 수출 감소폭이 30~40%에 이르렀다.

3월은 조업일수 영향이 없어지고, 코로나19의 파장이 2월보다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다시 수출의 큰폭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에 기댄 한

국 경제가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통제 불능으로 검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산업계가 사업장 가동중단(섰다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확산해 4000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1주일 이상 확진자가 급증할 공산이 크다.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시설을 폐쇄하고 공장을 멈춰야 한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지난달 22일에 이어 29일 확진 직원이 발생했고, 같은 곳의 LG디스플레이 공장 내 은행 직원이 환자로 판명돼 일부 시설이 폐쇄됐다.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현대로템 창원공장도 확진자가 나와 공장을 멈췄다. 근로자들이 밀집 근무하는 자동차·조선 등의 사업장일수록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상황을 한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도했다.

생산현장이 코로나19에 오염되고 섰다운되면 나라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져온다. 그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업들은 총력을 기울여 자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2월 수출이 반짝 늘어나자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착각이다. 코로나19 후폭풍이 가져올 위기의 심각성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임기훈의 독설(督說)



IT중소기업부 차장

하루 두 번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백 명씩 늘어난다는 소식뿐이다. 전염병 확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나 대응 방안 제시가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 말고 어디에 기댈 수 있는가. 의지할 대상이 더없이 불안한 행보를 보인다.

최근 최대 위기는 마스크, 손 세정제 같은 방역용품 품귀 현상이다. 정부가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불안감만 증폭된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지난달 27일 마스크 부족 국면을 타개하겠다고며 하루 350만 장의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하겠다고는 대책을 내놔다. 국내 생산물량의 50%를 공적 공급량으로 충당하고 90%는 내수로 쓰겠다는 결연한 선언도 곁들여서다. 웹소핑을 포함해 시중에서는 마스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1장당 1000원 미만이었던 가격도 5배에서 10배까지 뛴 상황에서야 내놓은 대책이었다.

못 미더운 게 어디 마스크뿐이라

얼핏 많아 보이는 일일 350만 장.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전국 2만 7300곳의 우체국, 농협, 약국 등을 통해 3월 초부터 공급하겠다고는 계획이다. 평균 1곳에 하루 183장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다. 한 사람이 5장씩 사가면 36~37명 분에 그친다. 백화점,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있으면 이 같은 수치도 의미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중의 마스크는 ‘씨’가 많았다. 마스크 5장 사려고 사람들이 수백 미터씩 장사진을 치는 형편이다. 제한량도 문제다. 5장은 4인 가족 기준 하루 쓸 수준이다. 마스크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매일같이 마스크를 사러 줄을 서고 마스크 파는 곳을 찾아 헤매는 ‘마스크 원정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 정말 비약일까. 게다가 공급이 ‘제때’, ‘정확히’, ‘제대로’ 될지도 불투명하다.

못 미더운 게 어디 마스크뿐이라. ‘주먹구구식’ 감염원 통제 및 관리도 문제다.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서 치료받는 도중 맞은편 침대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2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밀폐된 응급실에는 환자

들이 가득 차 있었다. 칸막이도 없었고 마스크도 안 쓴 의사는 의심환자를 검사하고 대화도 나눴다. 선별진료소를 지나쳐 병원 내부에 들어온 것이 발각돼 실랑이도 벌어졌다. 코로나 감염자가 그냥 출입해도 모를 정도였다.

미흡한 확진자 동선 파악도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확진자와 같은 PC방에 있었다며 보건소의 격리 통보를 받았다가 낱짜에 착오가 있었다며 취소된 해프닝을 겪은 지인도 있다. 통보에서 취소까지 지인의 회사 동료 및 가족들은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곳곳이 구멍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노고는 인정한다. 하지만 ‘열심히’보다는 ‘잘해야’ 하는 시가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가 능사는 아닌란 얘기다. 방역용품 공급도 감염원 관리도 전반적 보완이 시급하다. “마스크 5장 사는데 줄서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한 시민의 토로가 떠오른다. 마스크 수백 장 쟁여놔어도 불안할 판이다. 지금 국민은 정부밖에 믿을 곳이 없다. 정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shagger1207@

가 우리말 한 토막

“갑기가 다 낳았어요.”, “우리 집 고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표현들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쓰려고 하면 의외로 종종 헛갈리는 단어, ‘낳다’와 ‘낫다’.

‘낳다’는 ‘배 속의 아이·새끼·알을 몸 밖으로 내놓음’을 뜻한다. 반면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의미상 차이가 분명한데, 막상 쓰려고 하면 받침이 ‘ㅎ’인지, ‘ㅅ’인지 혼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해서 생기는 착오 때문일 것이다. 우선 ‘낳다’는 발음이 [나:타]로, 낳아[나아]·낳으니[나으니] 등으로 활용한다. ‘낫다’는 [낫:파]로 소리 내며, 나아[나아]·나으니[나으니] 등으로 쓰인다. 이 두 단어의 활용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헛갈리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낳아’ ‘나아’의 발음이 [나아]로, ‘낳으니’ ‘나으니’의 발음이 [나으니]로 똑같다. 발음이 같다 보니, 쓸 때 두 단어의 받침을 혼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언의 활용 규칙을 알면 헛갈

낳다와 낫다

리지 않을 것이다. ‘낳다’는 규칙 동사이다. 따라서 어간(낳-)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낳아, 낳고, 낳지’ 등으로 쓴다. 반면, ‘낫다’는 ㅅ불규칙 용언이다. 어간(낫-) 뒤에 오는 모음·자음에 따라 ‘나아, 낫고, 낫지’ 등과 같이 불규칙하게 변한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예문 내 용언 ‘낳았어요’와 ‘나았어요’는 이와 같은 이유로 틀린 표기이다. 의미상 두 단어의 위치가 뒤바뀌어야 맞다. “갑기가 다 낳았어요”의 경우, 병이 고쳐져 본래대로 된다는 의미이므로 ‘낫다’가 기본형이다. ‘낫다’는 ㅅ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탈락되는 불규칙 용언이므로 “나았어요”로 고쳐야 맞다.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의 경우에는 배 속의 새끼를 몸 밖으로 내놓음을 뜻하므로 ‘낳다’가 기본형이다. 규칙 동사인 ‘낳다’는 어간이 변하지 않으므로 “낳았어요”로 써야 바르다. 갑기는 ‘낫는 것’이고, 새끼는 ‘낳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약한 갑기 증세에도 긴장을 하게 된다.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확진환자들이 하루빨리 낫길 바란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삼성 에어드레서와 함께라면 우리집은 언제나 안심

꽃가루에 진드기
우리아이 피부 민감한 날에도

에어드레서만의 강력한 스팀이
옷감 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의 99.9%까지
빠짐없이 살균하니까



삼성 에어드레서

우리집 맑음 가전
삼성가전